

발 간 등 록 번 호
11-1291060-000003-10

ISSN 2586-260X

2019 호국문예 제19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조국과 겨레는 나의사랑 나의 영광 나의 힘 나의 생명
그를 위해 짧은 인생을 바쳐 그와 함께 영원하리라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2019 호국문예 제19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

Letters from The Seoul National Cemetery

2019 호국문예 제19집



현충원에서 픽우는 편지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



국립서울 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국토를 방위하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마저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민족의 성지이며 겨레의 얼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온 국민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우리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국가 수호의 결의를 새로이 다짐하는 장소입니다.



호국문예 제19집

발간사

국립서울현충원은 조국의 수호와 발전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신 민족의 성지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생생하게 깃들어 있는 역사적 현장에서, 그분들의 숨결을 느끼고 발자취를 더듬어 한편의 아름다운 글과 그림으로 남길 수 있도록 매년 호국문예백일장과 그림그리기 대회를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서 특별히 ‘현충원에 모셔진 독립운동가에게 편지 쓰기’라는 주제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오신 많은 참가자들이 각자의 마음에 품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 해주었습니다.

숭고한 희생으로 유관순 열사님이 되찾고 지켜낸 대한민국을 이제 직접 지켜나 가겠다는 어린 초등학생의 아무진 다짐과, 가끔씩 상상 속에서 어렴풋하게 느껴 보는 죽음의 공포감을 떠올리며 일제의 탄압과 혹독한 고문을 이겨내고 곳곳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신 분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는 중학생의 진솔한 감정도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역사 선생님이 되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진다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식을 사용하고 활동할 인재를 키워내고 싶다는 어느 고등학생의 든든한 소망도 엿보였고, 아이를 따라 백일장에 참가하게 된 것을 계기로 봄꽃과 가을 단풍을 보러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역사와 이곳에 계신 선열들과 친해지게 하고 싶다고 하신 학부모님의 소박한 소회도 저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충원이 누구나 부담 없이 평화와 전쟁, 역사와 통일, 민족과 국가에 대해 사색하고 탐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 오늘을 사는 한국인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어느 교사의 글 또한 현충원에 대한 애정이 물씬 느껴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어린 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각자의 문예적 재능을 통해 표현한 감동 어린 글과 그림을 이제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책을 읽는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분들의 정신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호국의 씨앗으로 심어져 힘차게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도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한 우리 대회에 특별상을 수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해주시는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한국문인협회이사장, 미술협회이사장을 비롯한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국립서울현충원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심사를 맡아주고 계시는 한국문인협회와 한국미술협회 관계자들에게도 지면을 빌려 감사를 전하며, 귀중한 작품들이 빛을 볼 수 있게 발간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국립서울현충원장 양 섭



호국문예집

연혁

제1집

「먼 전설이 아니예요」(1 ~ 4회 수상작 수록)

제1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1993년 10월 30일
인원 166명(초등학교 94개교,
중학교 72개교에서 각 1명)
시상 6명(초등부 3명, 중등부 3명)

제2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1995년 5월 27일
인원 176명(초등학교 87개교,
중학교 89개교에서 각 1명)
시상 제1회 대회와 동일

제3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1996년 4월 27일
인원 391명(초등학교 98개교,
중학교 99개교에서 각 2명)
시상 14명(초·중학교별 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각 2명, 장려상 각 4명)

제4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1997년 4월 26일
인원 382명(초등학교 99개교,
중학교 96개교에서 각 2명)
시상 제3회 대회와 동일

제2집

「그 언덕에 서면」(5 ~ 8회 수상작 수록)

제5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1998년 4월 26일(일)
인원 345명(초등학교 89개교,
중학교 84개교에서 각 1~2명)
시상 초·중학교별 최우수상(국방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교육감상) 각 2명,
장려상(국립현충원장상) 각 5명

제6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1999년 4월 24일(토)
인원 416명(초등학교 110개교,
중학교 104개교에서 각 1~2명)
시상 초·중학교별 최우수상(국방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교육감상) 각 2명,
장려상(국립현충원장상) 각 6명

제7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2000년 4월 22일(토)
인원 477명(초등학교 124개교,
중학교 110개교에서 각 2명)
시상 초·중학교별 최우수상(국방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교육감상) 각 3명,
장려상(국립현충원장상) 각 8명

제8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2001년 4월 21일(토)
인원 477명(초등학교 124개교,
중학교 110개교에서 각 1~2명)
시상 초·중학교별 최우수상(국방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교육감상) 각 3명,
장려상(국립현충원장상) 각 8명

제3집

「고마운 사람들」(9 ~ 10회 수상작 수록)

제9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2002년 4월 20일(토)
인원 478명(초등학교 158개교, 중학교 90개교)
시상 21명(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각 3명, 장려상 각 6명)

제10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2003년 4월 19일(토)
인원 429명(초등학교 123개교, 중학교 81개교)
시상 25명(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각 3명,
장려상 각 8명)

제4집

「가슴 속에 스며드는 빛나는 영혼」(11회 수상작 수록)

제11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2004년 4월 17일(토)
인원 152개교 300명(초·중학부)
시상 20명(국방부 장관상 2명, 교육감상 6명, 현충원장상 12명)

제5집

「가슴으로 부르는 연가」(12회 수상작 수록)

제12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2005년 4월 16일(토)
인원 152개교 300명(초·중학부)
시상 20명(국방부장관상 2명, 교육감상 6명, 현충원장상 12명)

제6집

「나라를 지킨 영웅들」(13회 수상작 수록)

제13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2006년 4월 15일(토)
인원 97개교 182명(초·중학부)
시상 24명(국방부장관상 2명, 교육감상 6명, 현충원장상 16명)



호국문예집

연혁

제7집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14회 수상작 수록)

제14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2007년 5월 12일(토)

인원 86개교 188명 * 백일장 고등부 도입

시상 24명(국방부장관상 2명, 교육감상 6명, 현충원장상 16명)

제8집

「지는 꽃 피는 꽃」 (15회 백일장, 1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15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2008년 5월 16일(금)

인원 393명(백일장 282명, 그림 111명) * 그림그리기 대회 신설

시상 25명(백일장 18명, 그림 7명)

제9집

「현충원의 봄날」 (16회 백일장, 2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16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2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2009년 4월 11일

인원 2,386명(백일장 616명, 그림 1,770명) * 백일장 일반부 신설

시상 백일장 24명, 그림 57명



제10집

「내 마음속의 현충원」 (17~18회 백일장, 3~4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17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3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2010년 5월 8일(토)

인원 2,518명(백일장 1,357명, 그림 1,161명)

시상 백일장 32명, 그림 76명

제18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4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2010년 10월 8일(토)

인원 609명(백일장 454명, 그림 155명)

시상 백일장 24명, 그림 12명

제11집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 (19~20회 백일장, 5~6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19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5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2011년 5월 14일(토)

인원 2,167명(백일장 1,167명, 그림 1,000명)

시상 백일장 49명, 그림 51명

제20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6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2011년 5월 12일(토)

인원 800명(백일장 616명, 그림 184명)

시상 백일장 33명, 그림 25명

제12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21회 백일장, 7회 그림대회, 외부 백일장 수상작 수록)

제21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7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2012년 5월 12일(토)

인원 2,167명(백일장 1,167명, 그림 1,000명)

시상 백일장 59명, 그림 79명





호국문예집

연혁

제13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22회 백일장, 8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2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8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2013년 5월 11일(토)

인원 3,082명(백일장 1,420명, 그림 1,662명)

시상 백일장 75명, 그림 84명

* 특별상 신설 (서울시 · 인천시교육감, 한국문인협회장, 한국미술협회장, 육 · 해 · 공군 참모총장상, 해병대사령관상)

제14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23회 백일장, 9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3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9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2014년 5월 10일(금)

인원 2,430명(백일장 1,389명, 그림 1,041명)

시상 백일장 66명, 그림 65명

제15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24회 백일장, 10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4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0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2015년 5월 9일(토)

인원 2,211명(백일장 1,094명, 그림 1,117명)

시상 백일장 66명, 그림 67명

제16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25회 백일장, 11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5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1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2016년 5월 7일(토)

인원 1,843명(백일장 986명, 그림 857명)

시상 백일장 67명, 그림 74명 * 특별상(경기도교육감상) 추가



제17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26회 백일장, 12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6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2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2017년 5월 13일(토)

인원 2,096명(백일장 957명, 그림 1,139명)

시상 백일장 71명, 그림 61명

제18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27회 백일장, 13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7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3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2018년 5월 13일(일) * 우천으로 하루 연기 개최

인원 2,042명(백일장 1,035명, 그림 1,007명)

시상 백일장 71명, 그림 61명

제19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28회 백일장, 14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8회 호국문예백일장/제14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2019년 5월 11일(토)

인원 2,400명(백일장 1,250명, 그림 1,150명)

시상 백일장 75명, 그림 61명



현충원 그림그리기 대회 심사평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문소정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정기옥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이애리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조춘제

초등부

“제14회 국립서울현충원 그림그리기 대회의 작품들을 심사하면서, 초등 학생인데도 크레파스 외에 다양한 재료나 기법들로 선이나 면을 처리해 나가며, 긍정적이고 밝게 표현하였던 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많은 작품이 순국선열을 기리는 ‘국립서울현충원’이라는 공통된 공간 안에서도, 마음은 독창적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며, 마치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화가 ‘마르크 샤갈’의 초현실주의 그림들을 보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색채와 재미있는 구성으로 그린 작품들이 우수했고, 대다수의 작품이 꼼꼼하게 마무리를 잘해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4명의 심사위원들이 한 점도 빠짐없이 수차례 반복해서 보며, 숙고한 심사에 임했습니다. 현충원 그림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중학부

“국립서울현충원 미술대회에 참가한 중학부 그림들을 감상하고, 심사하며 한 점, 한 점 학생들의 숨결이 담겨있는 작품에 숙연해지고, 몽클해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아 전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그림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세심하고 독특한 관찰력과 창의력, 호국정신을 이해하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한 그림의 완성도에 무게를 실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위원 네 명 다 학생들처럼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그림을 보며 함께 공유하고 같은 마음으로 교감을 나누는 느낌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학생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순국선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호국영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림 속에 담아서 국화 한 송이, 무궁화 한 송이, 소나무 한 그루에도 진심을 다해 정성스럽게 표현하려고 했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서 흐뭇했습니다. 그림 속 호국종소리처럼 힘차게 퍼져나가서, 앞으로의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꿈을 향해 변함없이 씩씩하게 나아가리라 기대해보며 모두 파이팅하라고 기원해봅니다.

제14회

현충원 그림그리기 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경기도교육감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육군참모총장상

해군참모총장상

공군참모총장상

해병대사령관상

 장려상

 가작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자

초등부

최우수상



나를 지켜주시는 국군아저씨와 미래의 나 장우진 안양 안일초등학교 3학년

우수상



현충원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임나미 안양 신안초등학교 5학년
우리들의 영웅 김소정 김포 무무초등학교 3학년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나라를 지키는 분들에게 감사편지를 하늘로 보내요 김태희 서울삼선초등학교 1학년
현충원 사랑 나라사랑 김하늘 서울신북초등학교 2학년

경기도교육감상

현충원에 간 나 황주하 장성 중앙초등학교 6학년
고세영 서울신남초등학교 2학년

인천광역시교육감상

당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김윤진 인천 해송초등학교 5학년
유관순 열사와 현충원 김보현 서울봉은초등학교 2학년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나라사랑 장지아 서울동일초등학교 6학년

육군참모총장상

이름 모를 용사들을 위하여 김윤솔 서울당곡초등학교 6학년

해군참모총장상

자랑스러운 현충문 앞에서 경례 정우진 서울송정초등학교 6학년

공군참모총장상

할아버지택 주소 충훈당 307014 유지원 서울서원초등학교 5학년

해병대사령관상

한국의 영웅들 김지후 서울신용산초등학교 2학년

장려상



현충원의 아름다운 소나무 최가람 화성 율목초등학교 1학년
현충원의 영웅들 이정혜 고양 토당초등학교 6학년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나라를 지킬게요 권연아 서울금동초등학교 4학년
우리나라를 지켜준 멋진 군인들에게 오유나 서울등현초등학교 6학년
현충원의 사계절 강동우 김포 유현초등학교 2학년
유관순 열사는 현충원에 있다 이호성 군포 당정초등학교 2학년
봄이 찾아온 현충원 정아윤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3학년
고마움이 가득 담긴 현충문 이나영 서울등원초등학교 4학년

가작



장군님의 구름게단 김태연 서울동작초등학교 4학년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아름다운 화생, 잊지 않겠습니다 임소율 서울등마초등학교 5학년
꿈꾸는 조국 임아린 안양 신안초등학교 5학년
유관순 언니와 3·1운동 임현비 안양 신안초등학교 1학년
애국정신 홍승우 서울신상도초등학교 3학년
바람에 휘날리는 희망 이대현 서울영신초등학교 1학년
나라사랑 이다윤 서울서원초등학교 3학년
우리나라를 위한 현충탑 서지아 서울신원초등학교 3학년
독도에도 현충원의 정신을! 강경민 서울영본초등학교 3학년
평화로운 현충원 유수아 서울목운초등학교 1학년

가작



감사합니다
현충원 속 숨겨진 자연
잊지 않겠습니다, 조국을 위한 당신의 송고한 그 사랑을...
대한 독립 만세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과 나
군인의 영혼
현충문과 융맹한 대한민국 국군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호랑이의 융맹함으로 지킨 조국
현충원 나무 아래 순국열사와의 만남
우리가 지켰다
하나되는 우리

박주하 서울보라매초등학교 2학년
조수아 장성 삼서초등학교 5학년
주홍진 홍성 내포초등학교 5학년
박정연 서울서빙고초등학교 5학년
이다현 용인 나곡초등학교 4학년
이지혜 서울등현초등학교 5학년
유수경 화성 청목초등학교 4학년
서민우 서울구남초등학교 4학년
박민주 평택 현화초등학교 5학년
김보경 문경 모전초등학교 6학년
김지우 용인 나곡초등학교 5학년
박도연 서울대영초등학교 2학년
김서인 서울면동초등학교 4학년
신지에 서울이수초등학교 6학년

중학부

최우수상



호국종의 사랑 이서현 성남 송림중학교 2학년

우수상



엄마...울지마요 고승재 등명중학교 1학년
대한독립군 무명용사위령탑 정연진 영훈국제중학교 1학년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재회 명지연 당곡중학교 3학년

경기도교육감상

나를 평화롭게 살게 해주신 분들에게 강민경 등명중학교 1학년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영현승천상 박시현 신도봉중학교 2학년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사계절 내내 푸르른 곳 이정은 상도중학교 3학년

육군참모총장상

떠오르는 태양 범수현 장승중학교 3학년

해군참모총장상

송고한 화생 한부현 상봉중학교 2학년

공군참모총장상

그들이 꽃피운 나라 이윤서 은성중학교 1학년

해병대사령관상

우리들의 대한민국 박서진 송파중학교 3학년

장려상



평화의 광장 송교원 고양 VCA KOREA학교 8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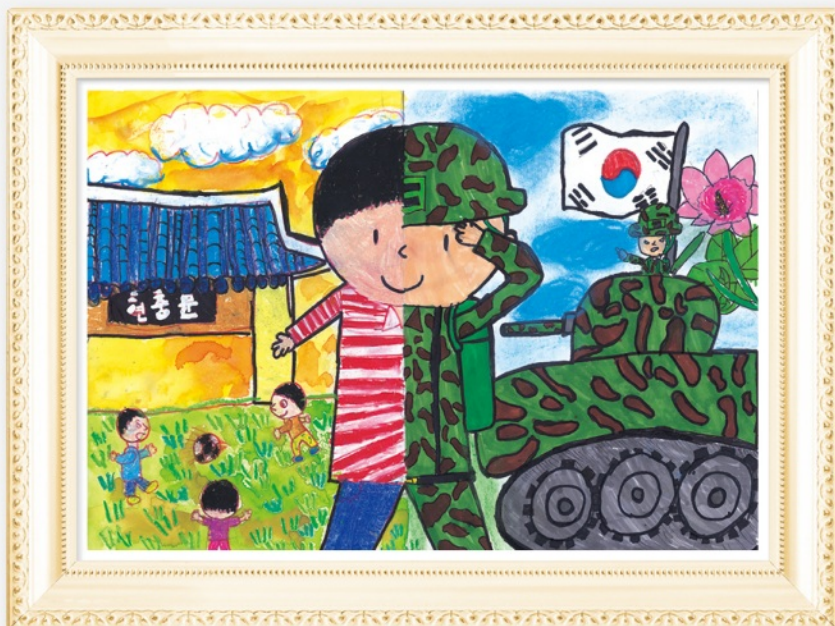
가작



대한의 아들이여 영원하라 도나윤 용인나곡중학교 3학년
독립운동가와 현충문 손의정 거원중학교 2학년
우리들의 영웅 이다해 내곡중학교 1학년



최우수상



나를 지켜주시는
국군아저씨와 미래의 나



장우진

안양 안일초등학교 3학년



우수상



현충원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임 나 미

안양 신안초등학교 5학년



우리들의 영웅



김소정

김포 풍무초등학교 3학년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나라를 지키는
분들에게
감사편지를
하늘로 보내요

김 태 희

서울삼선초등학교 1학년



서울특별시교육감상

현충원 사랑
나라사랑

김 하 늘

서울신북초등학교 2학년



특별상



경기도교육감상

황 주 하

장성 중앙초등학교 6학년



경기도교육감상

현충원에 간 나

고 세 영

서울신남성초등학교 2학년





특별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당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김 윤 진



인천 해송초등학교 5학년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유관순 열사와
현충원

김 보 현



서울봉은초등학교 2학년



특별상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나라사랑

장 지 아



서울동일초등학교 6학년



육군참모총장상
이름 모를
용사들을 위하여

김 윤 슬



서울당곡초등학교 6학년



특별상



해군참모총장상
자랑스러운
현충문 앞에서
경례

정 우 진

서울송정초등학교 6학년



공군참모총장상
할아버지택 주소
충훈당 307014

유 지 원

서울서원초등학교 5학년



특별상



해병대사령관상
한국의 영웅들

김 지 후

서울신용산초등학교 2학년



장려상



현충원의
아름다운 소나무



최 가 램

화성 울목초등학교 1학년



현충원의 영웅들



이 정 혜

고양 토당초등학교 6학년



장려상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나라를
지킬게요



권 연 아

서울금동초등학교 4학년



우리나라를 지켜준
멋진 군인들에게



오 유 나

서울등현초등학교 6학년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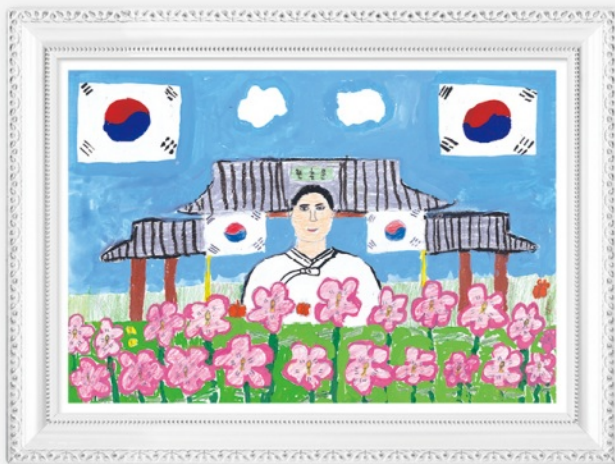


현충원의
사계절

강 동 우



김포 유현초등학교 2학년



유관순 열사는
현충원에 있다

이 호 성



군포 당정초등학교 2학년



장려상



봄이 찾아온
현충원

정 아 윤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
초등학교 3학년



고마움이
가득 담긴 현충문

이 나 영



서울등원초등학교 4학년



가작

장군님의
구름계단

김태연

서울동작초등학교 4학년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아름다운 희생,
잊지 않습니다



임소율

서울등마초등학교 5학년



가작



꿈꾸는 조국



임 아 린

안양 신안초등학교 5학년

유관순 언니와
3·1운동**비행 임무**

안양 신안초등학교 1학년



가작



애국정신

홍 승 우



서울신상도초등학교 3학년



바람에 휘날리는
희망

이 대 현



서울영신초등학교 1학년



가작



나라사랑

이 다 윤



서울서원초등학교 3학년



우리나라를 위한
헌충탑

서 지 아



서울신원초등학교 3학년



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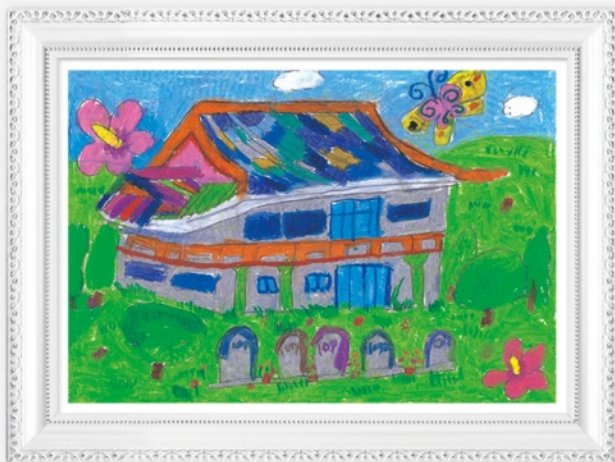


독도에도
현충원의 정신을!

강 경 민



서울영본초등학교 3학년



평화로운 현충원

유 수 아



서울목운초등학교 1학년



가작



감사합니다

박 주 하



서울보라매초등학교 2학년



조 수 아



장성 삼서초등학교 5학년



가작



현충원 속
숨겨진 자연

주 홍 진

홍성 내포초등학교 5학년



잊지 않겠습니다,
조국을 위한
당신의 숭고한
그 사랑을...

박 정 연

서울서빙고초등학교 5학년



가작



대한 독립 만세

이 다 현

용인 나곡초등학교 4학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과
나

이 지 혜

서울등현초등학교 5학년

가작



군인의 영혼



유수경

화성 청목초등학교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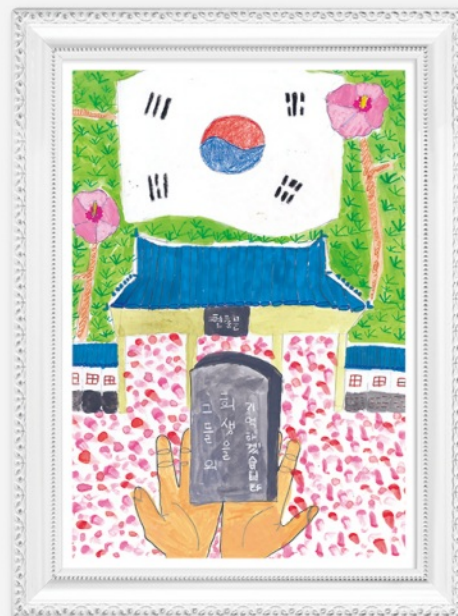
현충문과 용맹한
대한민국 국군



서민우

서울구남초등학교 4학년

가작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박민주

평택 현화초등학교 5학년



3·1운동 100주년



김보경

문경 모전초등학교 6학년



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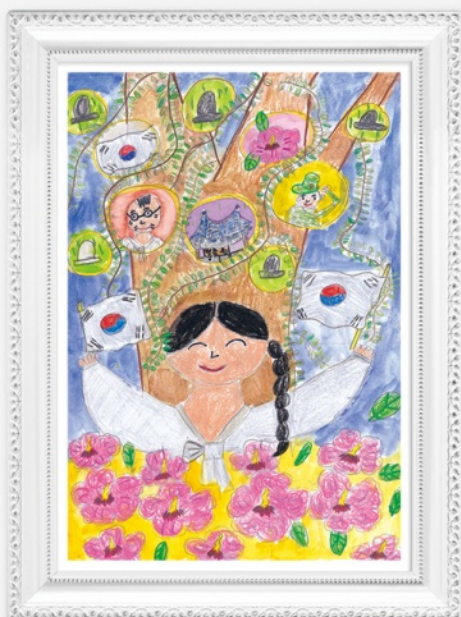


호랑이의
용맹함으로 지킨
조국

김 지 우



용인 나곡초등학교 5학년



현충원
나무 아래
순국열사와의
만남

박 도 연



서울대영초등학교 2학년



가작



우리가 지켰다

김 서 인



서울면동초등학교 4학년



하나되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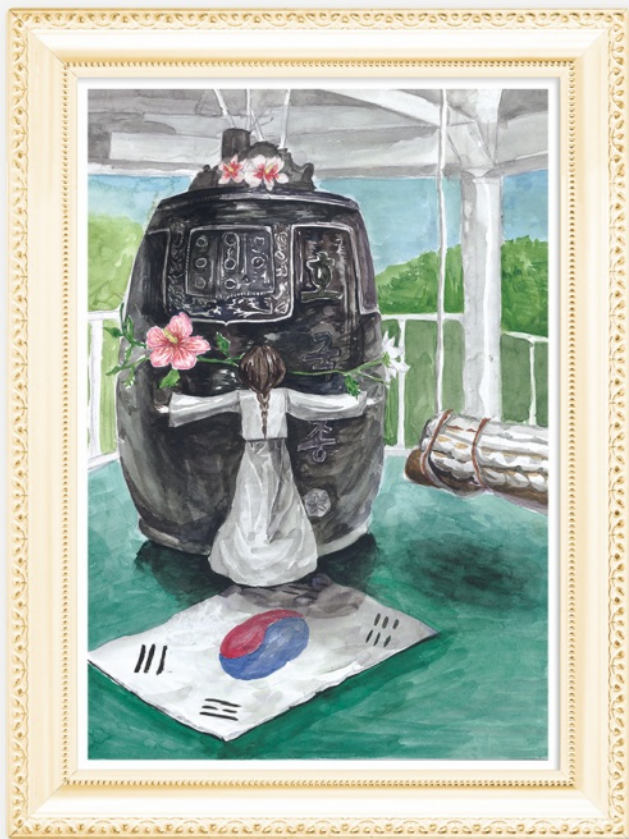
신 지 예



서울이수초등학교 6학년



최우수상



호국종의 사랑

이 서 현



성남 송림중학교 2학년



우수상



엄마...울지마요

고 승 재



등명중학교 1학년



대한독립군
무명용사위령탑

정 연 진



영훈국제중학교 1학년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재회

명지언



당곡중학교 3학년



경기도교육감상
나를 평화롭게
살게 해주신
분들에게

강민경



등명중학교 1학년



특별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영현승천상

박시현

신도봉중학교 2학년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사계절 내내
푸르른 곳

이 정은

상도중학교 3학년



특별상



육군참모총장상
떠오르는 태양

범수현

장승중학교 3학년



해군참모총장상
숭고한 희생

한부현

상봉중학교 2학년



특별상



공군참모총장상
그들이 꽃피운
나라

이윤서

은성중학교 1학년



해병대사령관상
우리들의 대한민국

박서진

송파중학교 3학년





장려상



평화의 광장

송 교 원



고양 VCA KOREA학교
8학년



가작



대한의 아들이여
영원하라

도 나 윤



용인나곡중학교 3학년



가작



독립운동가와
현충문

손 의 정

거원중학교 2학년



우리들의 영웅

이 다 해



내곡중학교 1학년

제28회 호국문예백일장

🏆 최우수상
🏆 우수상
🏆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경기도교육감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육군참모총장상
해군참모총장상
공군참모총장상
해병대사령관상

🏆 장려상
🏆 가작



호국문예백일장 심사평

심사위원 한국문인협회 권남희
심사위원 한국문인협회 이혜선

심사위원 한국문인협회 정성수
심사위원 한국문인협회 최원현

초등부

“호국문예백일장 원고 수준이 평이한 듯 고른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작품들을 보자니 국립현충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보여준 글이 많았습니다.”

이런 행사는 나라 사랑에 관심을 갖게 하고 동기유발을 해줍니다. 전시관 관람, 묘역을 둘러본 감상기, 애국지사에 대한 생각, 유관순 열사에 대한 애정 등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부모님의 참여정신도 높아 박수를 보냅니다.

중학부

중학생의 글은 대부분이 산문이었습니다. 시는 양이 많지 않았고, 수준도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산문은 우선 문장이 기본인데, 대체적으로 무난했지만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출한 문장은 아쉽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은 개성이 생명입니다. 개성적 아이디어, 개성적 상상력, 개성적 표현으로 자기만의 글을 창조해야 합니다.”

고등부

“작품은 주로 산문이 많았는데 가끔 좋은 운문도 발견되었습니다. 백일장의 주제에 부합하면서 구성력이 좋고, 작품성이 뛰어나면서 창의성이 있는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박지오님의 「현충원의 라피도포라」(산문)가 뽑혔습니다. ‘라피도포라’는 아래에 있는 잎에 빛을 나누어주기 위해 위에 있는 잎이 스스로 구멍을 내는 덩굴식물인데, 개체의 희생으로 전체가 살아남게 되는 이 식물의 희생과 나눔의 생존법칙에 선조들의 자기 목숨을 초개같이 버린 독립운동을 대입시키는 창의적 표현방법에서 큰 점수를 얻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구하기 위한, 후손을 위한 빛나는 희생을 기리는 주제가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많은 작품이 사실의 나열에 불과하고, 창의성이 부족하여 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더 좋은 글쓰기로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일반부

“산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에 상위 수상자들은 비교적 현충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작품을 쓴 것 같습니다. 자녀와 함께한 부모도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나라 사랑의 참뜻을 기리고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는 참가자들의 뜻이 글 속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들을 통해 이 점이 호국문예백일장의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국문예백일장 수상자

최우수상

초등부	가슴으로 전해지는 꽃발이야기	류세은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4학년
중학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시은	신산중학교 3학년
고등부	현충원의 라피도포라	박지오	경남 의령여자고등학교 3학년
일반부	지하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리다	유채은	경기도 성남시

우수상

초등부	유관순 열사께 118살, 꽃다운 나이 그녀에게	민서현	서울염리초등학교 1학년
중학부	가장 아름다운 꽃, 유관순 열사께 나의 세 가지 진심	김주하	서울동원초등학교 4학년
고등부	현충원의 아침 대한의 독립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던 열여덟의 소녀에게...	김나영	양주 옥정중학교 3학년
일반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원에서 얻은 말 없는 가르침	이서연	인천 갈산중학교 1학년
		박규리	고양 화수고등학교 3학년
		이재원	인천 서운고등학교 2학년
		전미라	경기도 남양주시
		선준호	서울시 중랑구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초등부	존경합니다!	김윤지	서울방배초등학교 5학년
	중학부	두려움을 달래준 그들의 미소	고서영	서울버들초등학교 2학년
	고등부	개화기(開花期)	김지은	봉원중학교 3학년
경기도교육감상	초등부	다시 만난, 유관순	한예원	의왕 내동초등학교 4학년
	중학부	우리 할아버지	이환희	고양 무원중학교 2학년
	고등부	51-4-02 묘역에 서서	우다은	경기도 양평군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초등부	종조할아버지의 묘역	이지유	광명 빛가온초등학교 2학년
	중학부	유관순 열사와 독립운동가분들	김승주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1학년
	고등부	누구의 묘지입니까?	김가람	전주 호남제일고등학교 3학년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초등부	꽃	김민서	서울문래초등학교 5학년
	중학부	5월의 안중근, 그리고 나의 결심	이 효	춘천 대릉중학교 2학년
	고등부	싸구려 소설	강재현	상문고등학교 2학년
	일반부	이회영 선생님께	현승엽	경기도 구리시
육군참모총장상	초등부	하루하루를 위해서	강윤모	서울가동초등학교 4학년
	중학부	반짝이는 별을 담은 대한민국 의병들에게	정혜나	양진중학교 3학년
	고등부	선열의 온기를 거닐다	정선우	서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해군참모총장상	초등부	햇빛과 꽃이 지지고 있는 현충원	김채원	서울버들초등학교 2학년
	중학부	나는 잊지 않겠다	이재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3학년
	고등부	푸른 묘비	정다원	화성 창의고등학교 3학년
공군참모총장상	초등부	채명신 장군님께	이예린	서울영문초등학교 1학년
	중학부	마음 한편에 담은 감사함	서은서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3학년
	고등부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 유관순	양은정	여의도여자고등학교 2학년

해병대사령관상

초등부	슬픈 현충원	이디은	서울가동초등학교 1학년
중학부	아로새기다	한주은	서문여자중학교 2학년
고등부	묵념(默念)	천성주	경문고등학교 1학년

장려상

초등부	내가 다시 알게 된 역사	김민겸	성남 낙생초등학교 6학년
	그대는 별	배효주	군포 능내초등학교 5학년
	잊지 않겠습니다	배정주	군포 능내초등학교 2학년
	현충원	박유범	서울가동초등학교 3학년
중학부	새하얀 마음	최지민	가락중학교 1학년
	유관순 열사님께	손지원	영동중학교 2학년
고등부	그대가 원했던 삶은, 그 나라는	최유진	화성 동탄국제고등학교 2학년
	아카시아 꽃 향기	이정은	고척고등학교 3학년
일반부	유관순 열사께 바치는 편지	유은아	대전시 중구
	부끄러운 열병(閱兵)	정해인	경기도 고양시
	당신의 계절은	박세연	경기도 고양시
	아버지와 현충원	황영애	경상북도 경산시

가작

초등부	그대들의 용기 있는 한 발짝	소윤아	서울신상초등학교 6학년
	현충원 안에 내 작은 마음	임수빈	서울가동초등학교 2학년
	도화지	김민호	서울가동초등학교 4학년
	나의 봄날과 그들의 봄날은...	장서은	인천용현남초등학교 6학년
	나의 나라	김민결	서울도림초등학교 3학년
	현충원	조지연	서울가동초등학교 2학년
중학부	봄바람	김나우	양주 옥정중학교 2학년
	나비	김하은	춘천 유봉여자중학교 2학년
	그대들은 어떤가요	이예현	동일중학교 2학년
고등부	영웅들의 대열	김태겸	성남 운중고등학교 1학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	박시현	인천고잔고등학교 3학년
	잠들지 못한 소년병	이윤서	고양예술고등학교 1학년
	유독 푸른 하늘을 보면	이한지	성남 낙생고등학교 3학년
	답장을 받을 수 없는 편지	민예지	양평 양일고등학교 2학년
일반부	유관순 만세	정은아	서울시 서초구
	아이들과 함께하는 현충원	진은하	서울시 은평구
	순국선열을 마음에 기리며	조영욱	인천시 남동구
	묘역의 꿈	김민지	경기도 고양시
	우리 안의 '현충'	박정은	울산시 남구
	이름 없는 당신에게	백승민	인천시 서구
	은밀하고 위대하게	안삼숙	경기도 남양주시
	시골 영웅	오창락	경기도 남양주시
	현충원을 산책하며	윤선경	서울시 동작구
	묘비석을 닦으며	김신애	서울시 서대문구



최우수상

가슴으로 전해지는 꽃밭이야기



류세은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4학년

나는 학교가 현충원 앞이어서 집에 오고가는 길에 늘 현충원을 볼 수 있었다. 현충원이 가까워서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현충원에서 놀기도 했다. 저학
년 때는 현충원은 그냥 학교 앞 공원, ‘친구들과 노는 곳’일 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현충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1년 중 어느 달에 보이는 수많은 꽃
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 후였다. 3학년, 4학년이 되고 조금씩 현충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오늘은 현충원 백일장에 오게 되었다.

엄마와 유품전시관에 가서 관람을 하고 왔는데, 그곳에서 한 감동적인 영상
을 보았다.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시
선으로 풀어낸 이야기인데 너무 인상적이었다. 그리워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남편을 보내준 아내와, 국가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 하고 목숨 바쳐 싸
운 남편이 정말 대단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둘 중 한 사람이어도, 그런 용기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스스로 국가를 지
키겠다며 자원입대한 이만우, 이천우 형제 역시 사랑하는 할머니를 남겨두
고 떠나서 전투에서 형은 22세에, 동생은 19세에 전사하고 말았다. 동생 이
천우 이등중사는 뒤늦게 유해가 발견돼 그제야 둘이 나란히 현충원에 묻혀있
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마치 감동적인 영화의 이야기 같았다.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하신 형제가 정말 대단했다. 지금이라도 함께 누워
계셔서 다행이고,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나라 군인들의 용기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내 눈에 조그맣게 줄
여놓은 기념비 모형이 보였다. 이 기념비들은 세계 각지에 우리를 도와준 다
른 나라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세운 기념비를 줄여 놓은 것이었다. 나는 다
른 나라가 우리에게 군대와 의료를 지원해준 것이 놀라웠다. 우리나라 군인
들에겐 조국이지만, 외국 군인들에게는 지나쳐도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일이
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한 나라의 국민을 다른 나라를 위해 보내준
것이 참 고마웠다. 사실, 내 꿈이 UN에서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건데 나
중에 꿈을 이루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나라를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각
기념비를 돌아보며 묵념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작년 즈음 엄마와 현충원을 거닐다 알록달록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찬 정
원이 보였다. 가까이서 보려고 다가가 보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꽃밭
은 다름 아닌 전사하신 군인장병분들의 묘였다! 한 묘에 한 송이씩 아름다운
꽃이 꽃혀있었고, 그 묘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꽃밭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
아름다운 꽃 아래는 모두 용사분들의 유해였다. 이렇게 희생자가 많을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
아름다운 꽃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것에 가슴이 울컥한다.

유품전시관에서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유해발굴전시실이었는데, 그곳에서
본 구멍이 열 개도 넘게 뚫린 철모와 군화를 보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아직도 땅속에는 우리가 찾지 못한 유해들이 많이 남
아있어서 속상하고, 하루 빨리 전부 찾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그들의 숭고
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지금 행복한 것을 기억하고, 과거에 지나지 않지는 않
게 기억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최우수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시은 신상중학교 3학년

나는 잠자는 것이 무섭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잠을 자기 전의 시간이...

왜 그러냐하면 우리 집은 11시 즈음에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잔다. 그러면 나는 빛 한 점 없는 캄캄한 방에서 잔다. 그래서 가끔씩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쭉'하고 돋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차가운 전율도 같이 올라온다. 정말 말 그대로 소름이 끼치는 순간이다. 그러고 나면 내 몸과 정신은 온통 공포로 가득 차 이성을 잃게 된다. 그렇게 죽음이 주는 공포심을 견디지 못한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냉장고 앞까지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듯 걸어간다. 그리고 나서야 나는 겨우 평정심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나를 공포와 불안의 모퉁이로 몰아넣은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은 언젠간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죽음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한다. 그래서 많은 연구원들이 사람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해 연구하고, 그에 따라서 의료 기술도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죽지 않기 위해서, 더 오래 살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우신 독립운동가 분들의 위인전을 읽다보면 마치 그분들은 죽음의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일제 강점기 때 살았다면 독립운동을 했을 것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부끄럽게도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다. 마음은 이미 일본군 수백만 명을 죽이고도 남았지만 '과연 내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 소신 있게 말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나면 일제의 탄압과 혹독한 고문을 이겨내고 곳곳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우신 분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

그 용감하셨던 분들이 묻힌 이 곳, 현충원에 태어나 처음으로 오게 되어서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현충원에 도착해서는 울려 퍼지는 애국가와 그 건물에 매료되어 나도 모르게 '우와~'하고 감탄을 했다. 그러다 시간이 잠깐 남기에 자리를 맡을 겸 잠시 주위를 돌아보는 차에 나는 묘비들이 일렬로 있는 곳을 발견했다. 그렇다. 애국지사분들의 묘역이었던 것이다. 호기심에 묘비를 둘러보던 중, 나는 한 비석의 뒤쪽에 쓰여진 '전사'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다. 그 옆의 날짜를 읽어보니 6.25전쟁이 한창이었던 때였다. 순간 나는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그 뒤 묘비석을 보았는데 역시나 '전사'라고 쓰여져 있었다. 방금의 서글픈 마음이 더 복잡하게 되었다. 한 번도 만나 본 적 없지만 나는 그리움, 슬픔, 유감스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들었다. 더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할 듯하여 얼른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내 자리에 와서 한번 생각해보았다.

'나는 한 번도 뵈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많은 묘비석들 앞에서 하염없이 묘한 슬픔을 느꼈을까?' 곰곰이 앉아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아하! 이 많은 참전용사분들도 사실 나와 같이 죽음이 무서웠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 생각을 하자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이해가 됐다. 얼마나 많이 두려웠을까. 두려웠는데도, 나가면 가족의 얼굴을 다시 볼지 말지 모르는데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튀기는 전쟁터에 들어가 용감하게 싸우셨던 참전용사분들.....

나는 오늘 이 대회에 나오게 된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내 생애 처음으로 현충원도 와 보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우신 독립운동가분들과 6.25참전용사분들에 대한 잊고 있었던 감사함을 다시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우리말을 하며 지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도 그분들이 있었음에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다.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모든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감사합니다."



최우수상

현충원의 라피도포라



박지오 경남 의령여자고등학교 3학년

식물은 잎을 통해 광합성을 해야만 살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식물이 공평하게 빛을 쬌 수 있는 건 아니다. 식물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빛을 쫓아 다니고 있다. 다른 식물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 한 줌의 빛이라도 더 쬌려는, 이들의 생존경쟁은 동물 못지않다. 더군다나 식물은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향일성(向日性)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나 다름없다.

그런데 어떤 식물은 일부러 잎에 구멍을 낸다. 극한의 생존 경쟁 속에서 잎에 구멍이 뚫린다는 건 매우 치명적인 일인데 말이다. 그 식물의 이름은 바로 '라피도포라'. '라피도포라'라는 덩굴 식물로 가장 위쪽에 위치한 잎이 구멍을 내어 그 구멍을 통해 아래쪽 잎에 빛을 나누어준다. 구멍이 난 잎에게는 손해지만 전체 잎들이 받을 수 있는 빛의 양은 그 손해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빛이 잘 들지 않는 숲 속, 개체의 희생으로 전체가 살아남는 것이다. 라피도포라는 희생과 나눔을 실현함으로써 오랜 세월 적자생존의 전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라피도포라는 자신의 잎에 뚫린 구멍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맨 위쪽에 위치한 잎은 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잎들을 지켜내려 했을까? 자신의 구멍을 통해 또 다른 잎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얼마 전 현충원에서 군데군데 구멍 난 등나무 잎을 보곤 문득 라피도포라가 생각났다. 구멍 뚫린 잎을 보고 있자니 그분들이 떠올랐다. 왜적의 침입

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찾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조직해 맞서 싸웠던 민족 영웅 의병, 독립신문을 발행해 임시정부의 소식을 알리고 세계 각지에 외교관을 파견해 한국 독립을 호소하며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는 등 국내외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의 임시 정부, 비밀 조직을 결성해 침략행위에 앞장 선 일본인과 친일파를 처단하고 일제 침략의 중심기관을 파괴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던 의열단,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등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광복을 향해 나아갔던 국내외에서 펼쳐진 항일운동. 그들은 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어떠한 대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싸웠던 것일까? 아마 자기 자신만이 아닌 내 나라, 내 후손들을 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며 싸웠던 것은 아닐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나무 우듬지로 머리를 드밀고 어떡해서든 한 줌의 햇살을 받아 식구를 지켜낸 라피도포라처럼 말이다.

만약 맨 위쪽에 위치한 잎사귀가 그저 햇빛을 더 받는 일만 생각했다면 라피도포라는 지금껏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그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지금의 우리 또한 살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아니 살아있어도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지탱해주는 숭고한 힘이다. 누군가가 세상에 남겨놓은 기억이, 그 기억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열정과 결실로 승화되고, 그렇게 승화된 기억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애쓰셨던 이들, 그대들이 있기에 조국이 있다. 그대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불멸의 기억을 남겨놓았다. 우리는 역사의 뒤편길에 묻혀 있는 그분들의 빛나는 희생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충원에 당당하게 자리한 등나무를 보며 이곳에 잠든 '라피도포라'의 희생에 다시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



최우수상

지하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리다

유채은 경기도 성남시

여기, 동작동 하늘 아래
개활지의 땅 밑에서
나는 벌써 육십 년 째 쉬고 있습니다

지상(地上)을 보지는 못하지만
어머니가 놓아 주시던 자리처럼
내 머리맡에는
'26428 육군 이병, 최상기'라고 쓰인
비석 하나 부동자세로 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오래 전부터
완전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돌아가신 어머니와
홀로 남은 아내가 와서
이제는 편히 쉬어라, 아가
영면하세요, 여보
눈물 흘리며 당부하고 떠났지만



우리는 습관처럼 오와 열을 맞추고
마음속으로 영점을 잡아
타양 타양 표적지에 사격연습을 합니다
저어기 맨 앞줄에 누워있는 김소위님
구렁에 맞춰 엇돌 엇돌
새벽 구보도 실시하지요

오늘은 별 좋은 날
근동의 어여쁜 새싹이 찾아와서
머리맡에 꽃을 놓고 갔습니다
최상기 군인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이름처럼 전쟁을 잊지 않고
언제나 상기하면 살겠어요
나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칭찬해주고 싶었지만
애써 참기로 했습니다

육십 년을 참아 온 우리들,
비록 이 나라의 햇빛과 별을 볼 수 없지만
살아있는 내 가족과
민족을 위해
군번 26428 육군 이병 최상기와
여기 모인 전우들은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목청껏 외치면서

지상으로 폴쩍 뛰어내리겠습니다 





우수상



유관순 열사께



민서현 서울염리초등학교 1학년

유관순 열사님! 우리나라가 삼일 운동을 한 지 벌써 100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1년씩 흐르면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히지 않아요. 유관순 열사님! 일본인도 이제는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고요.

5월 봄이 되었어요. 꽃도 많이 피었어요. 옛날이면 일본인이 다 총을 쏘서 아름다운 자연도, 꽃도 다 죽였는데 우리 열사, 의사들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 자연도 예뻐요. 옛날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잡혀 갈까봐 밖에 나가지 말랬지요? 지금은 예쁜 풀숲에 아이들이 뛰어놀아요.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인도 없으니 숨어 살지 않아도 되고요. 이게 다 유관순 열사님 같은 위인 때문이에요. 나는 우리 위인이 정말 잘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고마워요. 푸른 산이 생기고, 예쁜 꽃이 피고, 나무가 싹싹 자라고, 구름도 몽실몽실거려요.

나는 유관순 열사님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지금의 내가 있지요. 하지만, 걱정도 있어요. 일본이 괴롭히고 나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는데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는 거래요. 북한이 다시 남한을 공격하면 내가 싸울 거예요. 유관순 열사님처럼 우리나라를 위해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싸울 거예요. 난 할 수 있어요.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라서 유관순 열사님 같은 위인이 될게요. 



우수상

118살,
꽃다운 나이 그녀에게



김주하 서울동원초등학교 4학년

안녕하세요, 유관순 열사님, 저는 동원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주하입니다. 며칠 전, 저는 ‘항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게 된 열사님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분노의 주먹을 펼 수 없었습니다. 영화의 장면 중에는 제가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던 잔인하고 가슴 아픈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저는 유관순 열사님과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열여덟, 예쁘고 꽃다운 나이에 온갖 끔찍한 고문들을 참아내시며,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를 부르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며 만세운동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요즘, 일본은 아직도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며 일본 학생들의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열사님, 저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안부가 잊지 못할 우리의 아픈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열사님이 당하셨던 끔찍한 고문과 열사님이 지키고자 하셨던 우리나라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사님, 지금은 대한민국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 열사님께서 만세운동을 포기하셨다면 아직도 대한민국은 독립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뻥한 말일지라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사님, 제 꿈은 역사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제 꿈은 학생들에게 바른, 진실한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역사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열사님이 지켜주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아팠던 기억, 나쁜 기억 모두 잊으시고 제가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발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한 일만 있길 소원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잊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 역사 선생님을 꿈꾸고 있는 김주하가 항상 내 마음속의 우상이신
유관순 열사님께



우수상

가장 아름다운 꽃, 유관순 열사께



김나영 양주 옥정중학교 3학년

아카시아꽃의 달달함이 봄을 가득 채울 때쯤, 저희 학교 음악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한이 살았다>라는 제목의 학습지를 나누어주셨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여 옥사 8호실의 노래'와 '김향화, 권애라, 신관빈, 심명철, 임명애, 어윤희' 아름다운 꽃들의 이름과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바람과 함께 흘러 우리나라에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도 100년이 다 되었네요. 지난 100년의 봄 동안 안녕하셨나요?

'여 옥사 8호실의 노래'는 가사만 남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쉬운 마음에 음을 입혀보았습니다. 저는 같은 가사를 가진 두 노래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정재일'이라는 분이, 두 번째 노래는 '안예은'이라는 분이 작곡해주셨죠. 첫 번째 노래는 보다 현대적인 멜로디로 희망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두 번째 노래는 열정이 불타오르면서도 친숙한 멜로디로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지 못하셨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고 무엇이 더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원곡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젠 찬란히 빛나는 매봉산에서 같이 노래해요.

2년 전 여름에는 기념관에도 다녀왔습니다. 많이 더웠지만 그곳에서 당신의 애국정신과 삶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한 소녀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태산입니다. 당신의 피로 되살아난 이 나라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른들께서는 저희를 보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시기까지 합니다. 작고 불품없는 제가 당신과 같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멋진 나라의 국민이 될 자격이 저에게도 주어질까요? 하지만 저는 더는 도망치지 않으렵니다. 적어도 비겁하게 숨어서 나의 안위만을 갈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이 흔들릴 때 나의 사람들과 함께 태극기를 집어 들겠습니다. 살아도 나라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대의 용기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잊어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세계 어디에 존재하든, 당신의 강한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대에게 고백할 죄목이 한 가지 더 있네요.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도 둘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간도와 백두산의 절반은 중국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는 본래 대한민국의 같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라 통일의 기회가 온다면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멋진 나라가 되겠지요. 그럼 가장 먼저 당신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중근 의사님을 고향으로 모셔오지요. 빼앗긴 유물들도 모두 되찾고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도 받아내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스한 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날은 벌써 더워져 이제 여름이 오려나 봅니다. 이곳 현충원의 나무들도 뜨거워진 태양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네요. 꽃들도 서로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황금빛 여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들도 조금 더 높게 날고 있는 듯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편지는 전달되어야 할 곳의 주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표기되어 있으니 어떻게든 당신에게 갈 것입니다. 편지를 받으시면 꼭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써서 답장해주세요. 오래 걸리겠지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머물고 계신 곳이 불편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대의 답장이 오는 그날까지 저는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이겨내겠습니다. 한겨울에 봄을 기다리는 여느 민들레처럼 이 자리, 이 나라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아카시아꽃의 향기가 봄바람을 타고 제게 올 때마다 당신이 가까이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다시 만나면 우리가 그대에게 새로워진 대한민국을 선물할게요. ✉





우수상

나의 세 가지 진심



이서연 인천 갈산중학교 1학년

많은 사람들도 거의 다 비슷하지 않았을까? 각자 비슷하고도 다른 이유로 모여 같으면서도 다른 감정을 느낀다. 내 감정도 마냥 특별하진 않을 것이고, 다들 느끼는 건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슬픔과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 않은가?

먼저, 난 묘비를 보고 벅찬 감정이 들었다. 내가 가장 처음 느꼈고 제일 중요한 감정이었다. 수많은 장병 묘역이 애국심이 오르게 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은 애국심을 대신하여 ‘국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그런 단어는 무엄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역사를 배우다 보면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친구들이 꼭 있다. 특히 나라를 위한 분들께 너무 무례하다. 현충원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난 현충원에 다녀온 후 바뀌었다. 단순히 독서감상문 쓰듯 ‘많은 분들이 안타깝다’는 등 진심 없는 말이 아니라 난 묘비들을 보고 진심으로 여러 감정이 공존했다. 슬프고 안타까우면서도 존경스러웠다.

두 번째는 현충원에 올 때마다 놀라움을 느꼈다. 우리 할아버지가 계신 특별한 칸 뒤로 올 때마다 칸은 수없이 많이 채워져 갔다.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셨다. 사실 최근 난 위안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에 이어 책 ‘그래도 난 피었습니다’를 읽었다. 시간이 가기 전에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곳도 비슷하지 않을까? 살아계신 많은 분에게 감사를 취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 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오자마자 느끼는 것,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을 말했다. 그럼 이제 무엇일까?
바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다. 지금 내겐 셀 수 없이 많은 모비들과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보인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
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있거나 할까? 이
건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본인의 가족이
국가적 인물이라는 것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난 할아버지 장례식 때
깊은 슬픔이 있었지만, 대통령께 받은 깃발이 날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었다.
내가족이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서 내가 글을 쓸 수 있음에 행복하고 기쁘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자는 결심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말 다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 하나 하나가 전부 소중하다고, 우리 할아버지처럼 월남 전쟁에 가신 분들, 6·25 전쟁 용사분들 등 다들 대단하시단 걸 전 국민이 ‘의무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내 모든 말이 진심이었던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대단한 분 중 내겐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할아버지께도 너무나도 수고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다. 





우수상

현충원의 아침



박규리 고양 화수고등학교 3학년

한강을 따라 올라온 봄 아지랑이가
현충문 푸른 기와를 감싸며 소곤거리면
조국의 힘찬 기상을 머리에 베고 누워
묵상하던 강철의 영혼들
꽃의 미소로 답하며 봄맞이를 시작한다

녹슨 철조망을 찢으며 달려온 바람은
희고 고운 꽃잎에 고여 잠시 쉬고 있다
남과 북을 자유롭게 넘나들던 나비 한 마리
비석과 비석 사이에 날개를 접고
일등병 김동구, 소위 최관식
이슬 매달린 이름들을 쓰다듬는다

보라, 저 햇별은 얼마나 눈이 부신가
그러니 그대들은 슬퍼하지 말아라
나의 마음은 천만도 화염보다도 뜨겁고
그 어느 강물보다도 유구하여
붉은 꽃잎 이름 모를 고지에 떨어우고



여기 누웠노라
모두 하나 되어 일어나라
용서하고 화해하여 손을 잡아라
그리고 천 년 만 년 뻗어 나가자

호국영령들의 목소리
조용히 방문객들의 등을 토닥인다

춘추문에 걸렸던 햇살은 현충원을 지나
현충지에 머물며 잠시 쉬는 중이다
봄을 머금은 물고기들 파닥이며
꽃을 만난다

아지랑이가 걷히고 그림자가 걷힐 때
부모님의 손을 잡은 아이 하나가
아장아장 걸어와 햇살을 흐트린다
엄마, 엄마, 할아버지는 어디 누웠나요
엎드려 절하는 모자의 등 뒤로
힘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



까지도 대한의 독립을 생각하며 감옥 안에서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을
당신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겠지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슬픔
이라던 그 말이 귓가에 생생히 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저 태극기의 흰색 바탕 속의 붉은
색과 푸른색의 조화로움과, 견고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곤감리, 4괘는 당
신과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이들의 혼이 담겨 있겠지요. 그래서일까요. 바람
에 날리는 태극기가 유독 슬퍼 보이면서도 그 속에 강인함이 자연스레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살아간 하루하루가 모여 독립을 이루게 되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의 나는 작은 상처에도 아파하는 열여덟의 학생이지만,
당신이 살아간 삶을 알기에 앞으로 어느 순간에도 당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
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권이 주어진 것이
당신과 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것이라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역사를 잇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으니까요. 대한민국의 발전
에 큰 획을 긋는 사람이 되겠다고 확정한 약속은 못 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앞날에 누가 되지 않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이루겠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는 자유를 주신
당신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수상

국립서울현충원



전미라 경기도 남양주시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96번’

캐나다 출신의 늙은 노부부는 고국에 돌아가기 전, 꼭 가 봐야 할 곳이 있다
며 내게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어눌한 한국말과 달리 단정하게 접힌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반듯이 눌러 쓰인 글자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스코필드 선생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 주신
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눌한 한국말이었지만 한 글자씩 또박또박 구사하던 노인의 목소리엔,
강한 의지가 묻어 있는 듯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으레
쇼핑센터나 식당을 찾을 거라 생각했던 저에게 꼭 현충원에 가 보고 싶었던
노인의 말은 내게 적잖은 당황을 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참 부끄럽게도 노인이 말하던 스코필드 선생님도, 현충원도 자신
있게 아는 바가 없었지만 간곡한 부부의 부탁에 약속을 정하고야 말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약속 날이 되었고, 아침부터 부리나케 준비하여 현충원에
도착했습니다. 때는 싸늘한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날이었습니다만, 노부부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찍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부와 몇 마디 인사를 주고받고, 한 발자국씩 현충원 안으로 몸을 움
직였습니다. 곧 눈이 올 건가 싶게 한껏 찌뿌러진 날씨 탓인지 우리 세 사람

이 걸어가는 길은 암전된 것처럼 어두컴컴해 보였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걸으면 될 듯하네요.”

노부부는 저를 묵묵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뼈를 파고드는 추위에 몸은 한층 더 움츠러져 갔습니다만, 사실 우리 세 사람은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43만m²의 넓은 현충원 안에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16만여 위의 호국영령들이 흔들림 없는 굳건한 기세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곳 현충원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관악산의 묵직한 형세처럼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장병들의 빼곡한 묘비들이 우리 세 사람을 흔들림 없이 잔잔하게 바라봐 주고 있는 듯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피부에 닿는 겨울의 찬 기운에도 불구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심연한 마음을 붙잡아 가던 우리에게 스코필드 독립운동가의 묘비가 보였습니다.

“이곳이네요,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독립운동가가 계신 곳이에요.”

노인이 내게 건넨 쪽지대로 현충원의 애국지사묘역 96번엔 ‘석호필’이란 한국이름을 가진, 독립운동가 스코필드가 묻혀 계셨습니다. 묘비에까지 본인 이 도와주던 한국인 소년, 소녀와 불쌍한 사람들을 맡아달라 새길 만큼, 한국을 사랑했던 스코필드, 파란 눈의 이방인이었던 독립운동가 스코필드는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과 일제의 탄압 현실을 국외에 널리 알리고, 독립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분의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을 조선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의 묘비 앞에서, 감사함을 담아 침묵을, 묵념을 보였습니다.

이후 우리 세 사람은 끼니도 거른 채, 애국지사묘역을 지나 대한독립군 무명용사위령탑, 현충탑, 전시관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겨레를 위해 몸 바쳐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선열을, 애국지사를, 장병들을 추모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현충원을 걸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한국인이셨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시다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홀로 캐나다에서 어린 남매를 키우셨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줄곧 말씀이 없으시던 할머니께서 입을 떼셨습니다. 국적은 캐나다인이지만, 아버지의 고향이자 마음속 조국인 대한민국을 단 한 순간도 잊은 적 없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말라붙은 눈거죽 위로 흘러 내리는 할머니의 눈물은 드문드문 피워낸 검버섯을 지나, 제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죽지 않는다면, 다음에 다시 한국에서 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단정한 정장 위로 파리한 몸을 가진 두 부부는 저를 몇 번이나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현충원을 함께 갔던 노부부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셨고, 저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봉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만, 이후로 저에겐 한 가지 소중한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매년 현충원에 방문해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달라 하신 스코필드, 석호필 독립운동가의 고결한 조국애와 정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몇십 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감사함을 담아 저는 현충원에 갑니다. 갈 것입니다. 🇰🇷





우수상

현충원에서 얻은 말 없는 가르침



선준호 서울시 중랑구

몸과 맘 모두 경건해지는 공간에 오니 먼저 솔직한 고백을 하고 싶어진다. 부끄럽게도 애국이라고는 모르고 달려 온 40년이였다. 이기심 가득한 세상에서 남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으나, 피해도 주지 않으며 살았다고 자부할 뿐이다. 담백한 삶에서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은 수도 없이 맞이했지만, 휴일은 가까웠고 나라는 너무 멀었다. 가족 중에 독립운동가나 참전 용사 한 분 없었고, 군대에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으나 의무감이었지 애국심의 발로는 아니었다. 치기 어린 마음이었다. 반성한다. 어렵사리 얻은 직장에서 교사로 17년째, 지독한 스트레스와 매너리즘이 극에 달한 시절이라 학생 지도가 곧장 애국으로 연결되기 어려웠다. 과거 6·25도 큰 전쟁이었지만, 현재 학교도 충성 없는 전장이기는 마찬가지인 때문이다. 한없는 안일을 추구하며 자신의 몫만 챙기려 드는 이기적인 동료, 자기 자식만 중요한 듯 사소한 불만에도 이해 못 할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인내심 부족 학부모, 친구의 고통에는 애써 눈을 감고 오직 성적에만 목을 매는 비뚤어진 인성의 학생으로 인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절정으로 치닫는 즈음.

복잡한 머리를 달래 볼까. 사람 가득한 도심에서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바람은 무엇인가. 달포 전쯤 목적 없는 길을 혼자 나섰다. 어디로 가야 조용한 서울을 만나나. 고심 끝에 당도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동작역 주변은 황야처럼 스산했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은 듯 느껴졌다.

열을 지어 비 맞고 서 있는 비석들이 마치 시달리고 흔들리는 나와 같았고, 관리자의 일장 연설을 위해 동원된 단발의 학생들 같기도 하였다.

현충원, 유치원 때 견학 온 기억이 얼핏 스쳤으나, 일부러 찾기에는 연고가 없어 물리적·정신적으로 먼, 용기가 필요한 공간이었다. 진행 중인 나의 삶에서 종료된 남의 죽음을 살필 겨를은 없었고, 내 조상 돌볼 여가도 없는 데 잊힌 영웅인들 안중에 있을 리 없었다. 모두 핑계이고 무관심이었으므로 또 한 번 성찰한다. 성긴 빗방울과 자욱한 안개 속 묘역 이곳저곳을 따라 걸으며 상념에 잠긴다. '저기 누운 분은 나보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졌구나.', '죽어서도 계급에 따라 묻히는 곳이 다르구나.', '군인도 경찰도 아닌데 여기 계신 분도 있구나.' 아이 같은 또는 세속적인 감상 속에서 문득 이 소중한 하나 하나의 화신들이 우리 곁에 잠시 살다 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살고 있는 것이라 여기게 되었다. 오늘의 주체 못 할 나에게 말없이 준엄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들이라고 가족과 가정이 없었으랴.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자 부모이고 지아비·지어미였을 터인데, 하지만 본 적도 없는 이웃을 위해, 미래의 후손을 위해 자신을 던지고,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자유를 위해, 앞날의 평화를 위해 타국에 잠든 분들이 아닌가, 그에 비하면 고작 직장에서 바로 옆에 앉은 동료, 아직 어린 학생, 그들의 작은 성취를 바라보는 부모조차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불평을 일삼는 나는 얼마나 한없이 작고도 부끄러운지.

이 모든 영령들이 소망했던 통일이라는 명제도 결국 개인의 마음의 평화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연한 발걸음에도 깨달음은 있었다. 지금 여기 있는 영혼들의 시대와 인생도, 나와 의 조우와 인연도 결국 운명이었듯.

최신의 9호선 날렵한 지하철이 대조적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저물어 가고 있는 상황에 현충원이 언제까지나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의 추모 공간으로만 고독하게 남을 수는 없을 것이다. 공경의 마음만은 엄숙한 경건하게 유지하되, 달라진 시대에 맞게 이미지의 쇄신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 계신 임들께 외람된 일이 될까. 수행 비서를 대동한 정장 차림 고위 관료의 의례적 장소나 일반인의 범접이 불가할 것 같은 극소수만의 폐쇄적 공간이 아니라, 그날 내 발길처럼 누구나 언제든지 부담 없이 평화와 전쟁, 역사와 통일, 민족과 국가에 관해 사색하고 탐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감히 기원해 본다. 더 이상 박제된 영웅들의 안식처가 아닌, 오늘을 사는 한국인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는 '살아 있는 교과서'로 거듭나기를, 육신의 기억을 넘어 영혼의 부활을 향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시간의 풍화 작용이 기억을 흐리게 할 순 있어도 도도한 정신만은 가슴 깊이 남아있도록.

이제 알겠다. 역경을 딛고 이 땅을 지킨 우리의 진짜 선배들을 보며 다시 힘을 얻어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진정 나라 사랑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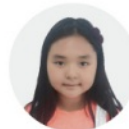
‘어떻게 지킨 귀한 나라의 중한 후손인가.’ 애국 혼들의 물음에 답한다. ‘소총한 자루로 내던져진 피바람 속 전쟁터에서 이등병 계급으로도 나라를 지켜 냈듯, 분필 한 자루로 내팽개쳐진 치열한 입시전 속 일개 교사이지만 먼저 가신 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강건한 나라를 이끌 동량을 키워 내리라’고. ✈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존경합니다!



김윤지 서울방배초등학교 5학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2019년에 살고 있는 김윤지입니다. 29살에 슬픈 생애를 마친 윤동주 시인이 이 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시 중에서 ‘별 헤는 밤’을 읽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 줄 듯합니다’에서 당신이 정말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별처럼 당신의 걱정도 함께 사라지기를 바랐을 것 같아 나도 두 손 모아 기도하게 됩니다.

독립을 외치던 조선인들이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고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시로 승화시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던 당신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당신은 많은 시련 속에서도 독립운동가 못지않게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북간도 명동촌에서 연희전문학교(지금의 연세대학교)에 입학할 만큼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생할 중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수님이 일본 경찰에게 잡혀갔더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문과 수업은 재미있었나요? 저는 당신에 대해 아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위해서 나라를 위해 할 일을 한 것이지만 일본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생체실험의 대상까지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쟁 포로들을 무기 실험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게 모두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일본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습니다. 제게도 군대에 간 사촌오빠가 있습니다. 그 오빠는 당신처럼 책을 많이 읽고 지금 군대에서 토익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오빠는 체격이 큰 편이지만 당신은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겠지요.

당신은 감옥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되기를 기다렸겠죠? 당신이 돌아가시고 6개월 뒤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맘 놓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 수 있지요. 조선어로 시를 썼다고 감옥에 갈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고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현충원에서
2019년 5월 11일
윤지 올림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두려움을 달래준 그분들의 미소



고서영 서울버들초등학교 2학년

“우리 한 번 현충원에 가볼까?”

아빠가 말했다. 난 수저를 내려놓고 아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런데 현충원이 뭐야?”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 곳이지.”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니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졌다.

“거..거기는 왜 가려고?”

“이제 우리 서영이에게 현충원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려고, 우리 함께 가보자!” 하지만 나는 그곳을 향한 내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며 내일이 오지 않기를 빌었다. ‘음산하고 으스스한 현충원에는 제발 갈 수 없게 해주세요.’

다음 날 화창한 봄의 햇살과 따사로운 바람은 어젯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달래 주었고, 막상 도착하여 본 현충원은 나의 상상과는 달리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나무들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고 드넓은 잔디밭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나는 아빠의 손을 잡고 충혼당과 묘지를 돌며 이곳에 잠들어 계시는 분들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배워나갔다.

그러다 문득 묘지에 적혀있는 이들의 이름들을 보았다.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어느 책에서도 읽어 본 적 없는 그 이름들... 아무도 몰라주는 외톨이 같은 그 이름들을 보고 있으니 마음 한구석이 안타까워져 나도 모르

게 눈을 감고 비석들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 순간 전쟁터에서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 그분들이 고개를 돌려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은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란다.”

그때 내 마음 속으로 그분들의 희생정신이 흘러 들어왔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나와 내 사랑한 사람들을 지켜주신 고마운 분들이라는 것을... 나는 뒤돌아 다시 현충원을 둘러보았다. 이곳이 평화로운 이유가 고마우신 분들의 미소가 반짝이며 빛나고 있어서인 것만 같았다. 그리고 아빠와 새로운 마음이 집으로 그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조의를 표했다.

지금까지 저희와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편하게 쉬세요. 앞으로는 저희가 지켜 나갈게요! 나는 이제 역사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배워나가며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켜주고 싶다. 나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후손들을 내 힘으로 지켜주고 싶다. 내 결심에 대하여 아빠에게 이야기했더니 방긋 웃으셨다. 그날은 정말 뜻깊은 날이었다. ✨



특별상

경기도교육감상

다시 만난, 유관순

-유관순 열사님께 보내는 편지-



한예원 의왕 내동초등학교 4학년

유관순 열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열사님이 지켜주신 조국에서 살고 있는 11살 한예원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관순 열사님과 만남을 잘 간직하고 있어요. 5살 때 위인전에서, 7살 때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서, 4년이 지난 지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만났네요.

5살, 책에서 보았을 때에는 제가 너무 어려서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태극기 색칠에만 열중했어요.

7살 때 충청남도 천안에 외증조할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 부모님과 방문하였어요. 초록 산길을 걸어 올라가면 햇살 따뜻한 곳에 '추모각'이 있었어요. 그 안에 모셔진 열사님의 영정을 보았어요. 순백의 한복을 입으시고, 두 손에 태극기를 꼭 움켜쥐시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무척 당당하게 보였어요. 저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 엄숙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4년이 지난 오늘, 11살이 되어 호국문예백일장에 참가하여 현충원에 오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도착해서 호국전시관에 가보고 유관순 열사 묘역이 현충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3·1독립운동이 얼마나 커다란 의미가 있는지 진심으로 알게 되었어요. 내가 5살 때 색칠한 태극기가 유관순 열사와 독립운동가들의 뜨거운 피와 열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숭고한 희생으로 유관순 열사님이 되찾고 지켜낸 대한민국, 이제는 제가 지켜갈게요.



2019년 5월 11일
한예원 올림



특별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증조할아버지의 묘역



이지유 광명 빛가온초등학교 2학년

증조할아버지는 내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 ‘첫 증손주 얼굴을 보고 가야 하는데’ 첫 증손자인 나를 못 보고 가게 돼서 아쉽다고 가족들에게 여러 번 말하셨다고 했다. 현충일, 호국원 큰 전광판에 <8구역 김재실> 할아버지의 이름이 뜬 것을 보고, 장병묘역도 둘러보고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엄마와 기념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난다. 증조할아버지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셨다니, 커다란 전광판을 보고 나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했다. 할머니 댁에 놓인 증조할아버지 사진을 봤을 때 몰랐는데!

사실 논산시 노성면 효죽리에 있는 증조할머니댁 거실 한가운데에 증조할아버지 사진 밑에는 할아버지가 받으셨던 훈장과 6·25 참전용사 모자도 놓여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증조할머니와 할아버지가 6·25때 이야기를 해주신다. 기억나는 것 몇 개만 적어보자면 6·25때 마을 청년들과 증조할아버지가 군 입대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훈련소가 제주도에 있었다고 했다. 고조할머니는 큰아들이 군 입대를 하게 되자 꼭 죽는 줄로만 알고 울다가 기절하셨다고 했다. 왜냐면 마을에서 살아 돌아온 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증조할아버지가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고조할머니는 전쟁통에 떡을 해서 목포까지 바로 내려가셨다.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배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겨우 겨우 제주도에 도착해서 증조할아버지를 만나셨는데 떡이 다 쉬어버려서 증조할아버지가 못 먹었다는 이

야기. 고조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떡을 제주도에서 했어도 됐는데 떡을 못 먹었다고 두고두고 아쉬워했던 이야기.

또, 하루는 산을 국군이 갖고, 하루는 북한이 갖고 매일 싸우게 되자 할아버지 부대의 높은 분이 군인들에게 “나와 같이 폭탄을 메고 북한 막사로 갈 사람!”, 딱 한 명만 지원하라고 했다. 폭탄을 메고 가면 꼼짝없이 죽게 되니까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지원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가진 것들 중 좋은 것들은 다 동료 군인들에게 나눠주고, 마지막으로 고조할머니께 편지를 썼다고 한다. 외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눈물이 난다. 나라를 수호하는 모든 용사분이 그러셨을 텐데... 할아버지가 폭탄을 메고 나와 산을 한참 오르는데 폭탄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의 부대로 북한군이 쏜 폭탄들이 떨어져 할아버지 동료들이 모두 사망하셨다고 한다.

증조할아버지 한 분만 해도 이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우리 가족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장병묘역에 잠드신 많은 호국용사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을지, 또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는 얼마나 많을지,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고 전해지길 바란다. 조국과 자신의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의 용기와 희생을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 전시관에 있던 말처럼 ‘묘비에 새겨진 이름 제 가슴속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을 사는 우리가 나라를 수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늘 생각하겠습니다.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김민서 서울문래초등학교 5학년

꽃 한 송이가 또 시들고 있네

조국은 하나밖에 없다며

그것이 나의 온전한 정신이 향한 곳이라며

수천 명이 그것을 되찾으려다 꺾어지네

또다시 한 떨기 꽃이 고개를 숙이게 될 줄로만 알았지만

무릎 꿇지 않으려고 고개를 더욱 바짝 세우네

꽃에 맺혀있는 눈물을 보니 더 아련해지는 내 마음

아! 어찌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을꼬

내 이 짙은 향기를 절대 잊지 못할지어다



육군참모총장상

하루하루를
위해서



강윤모 서울가동초등학교 4학년

현충원에 와서

모지를

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잠들다’

이런 글귀를 보니

마음의

슬퍼 집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분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평화롭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위해서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겠습니다

가지고

그게 우리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꿈을 갖고
일편단심

임시정부 수립 백 주년을
맞이한 지금

살아가겠습니다

숭고한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백만 년 천만 년
길이길이 빛나라라
믿고 또 믿습니다 ✈



특별상

해군참모총장상

햇빛과 꽃이 지키고 있는 현충원



김채원 서울버들초등학교 2학년

전쟁은 아픔이야, 왜냐면 우리를 다치게 하니까. 총과 칼이 몸을 다치게 하고, 마음은 가위로 자르듯이 찢겼을 거야. 마음이 찢어진 아이를 한 책에서 보았어. 그 아이는 전쟁으로 인해 한쪽 다리와 엄마를 잃게 되었어. 전쟁으로 잃게 된 사랑하는 엄마를 되찾고 싶은 아이는 매일 밤마다 자기 방에 갇혀서 상상 속에 전쟁놀이를 했지. 하지만 전쟁놀이는 더 이상 놀이가 아닌 괴로운 시간으로만 남게 되었어. 놀이를 하는 시간만큼 엄마가 생각나고 보고 싶었거든. 목숨을 바쳐 희생한 엄마 덕분에 살아남은 아이는 어떻게 다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현충원은 책 속의 소년과 비슷한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준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곳이야. 내가 아닌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귀한 삶을 희생하신 분들이 잠들어 계신 곳이며, 보고 싶은 마음, 지켜 주셨다는 감사함, 앞으로도 우리들이 잘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곳이지.

난 현충원을 가보고 깨달은 게 있어. 무덤들이 많다고 해서 무서운 생각만 가득했는데, 그분들이 계셔서 나와 내 소중한 가족까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걸 말이야. 함께 맛있는 걸 먹고, 함께 뛰어놀 순 없지만, 숭고한 영혼들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곳이란 걸 말이지.

한 무덤 앞을 지나가는데 따뜻한 색을 가진 꽃의 향기를 맡았어. 그 꽃에는

하늘에서도 밝게 웃으라는 꽃말 하나와, 그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마음도 함께 들어있어. 꽃과 함께 나는 그분들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운 마음이 많이 생긴 것 같아. 내가 느낀 모든 것을 책속의 소년도 느낄 수 있었다면 전쟁놀이로 무서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할 수만 있다면 그 소년과 함께 현충원에 가서 엄마가 널 위해 희생하셨다는 송고한 정신을 알려주고,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어.

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여름엔 뜨거운 햇빛이, 가을엔 알록달록 예쁜 빛깔 나무들이, 겨울엔 소복소복 쌓인 포근한 눈이 그곳에 묻힌 분들을 지키고 있다. 혹시 아픈 기억으로 힘들지도 모를 순국선열들에게 이제는 편히 잠들라고 하듯이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 덕분에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건지도 몰라-

우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도 없다”란 말을 마음에 새기고 아픈 과거를 기억해야 해. 아픈 과거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도 없었을 테니까.

매일 찾아가고 싶은 곳, 역사를 찾아주는 곳, 우리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곳
에서 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겠다고 다짐했어. 기
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 널리 알려야 하는 이름들을
마음속에 꼭 새겨놓고 말이야. 



특별상

공군참모총장상

채명신 장군님께



이예린 서울영문초등학교 1학년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땅속에 계신 장군님은 얼마나 더우실까요?
장병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홀륭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놀 때도 나만 생각하게 되는데 장군님은 장병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시다 돌아가신 많은 위인들이 계시지만 장군님은 제 마음 속에 가장 큰 위인인 것 같아요. 동생과 간식을 먹을 때도 제일 크고, 제일 많은 것이 먹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기는데 장군님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될게요.

우리 할아버지도 얼마 전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두 분이 만나서서 같이 대화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커서 멋진 장군님의 모습을 담은 위인 동화를 만들고 싶어요.

오늘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재밌게 산책도 할 수 있는 현충원 공원이
있어 너무 좋아요. 장군님을 기억하며 또 동생이랑 놀러 올게요. 사랑해요. 





특별상

해병대사령관상



슬픈 현충원



이다은 서울가동초등학교 1학년

가족과
함께
현충원에
왔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묘비에
각각
슬픔이
잠겨있습니다

용감하게
앞장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도
뒤를
따르겠습니다 🚢



목숨을
바친
분들
감사합니다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개화기(開花期)



김지은 봉원중학교 3학년

열여덟 개의 꽃잎이
제 몸을 흠뜨리고 주변에 뿌리를 거두었다
아우내 장터 한가득 채워진 민들레들
겨레를 위해 앞으로 앞으로 향해간다

별이 잘 드는 곳으로 가자
더욱 잘 부서져 퍼져야지
자우룩한 선혈 아래서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기에



얼굴은 붓고
손톱은 다 깨져
호흡 또한 고르지 않다

그 어린 봄을 위해
내던진 육신 안에는
마모되지 않을 깃발들이
서로의 모서리를 부대끼며 서 있다.

우리는 초연하다
이 꽃이 피고 지는
그 단연한 순간까지도 





특별상

경기도교육감상

우리 할아버지



이환희 고양 무원중학교 2학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왔지요. 할아버지,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 동생은 6학년이 되었어요. 좋은 소식 알려 드릴게요. 제 동생이 전교 학생회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젠 솔직히 할아버지, 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게 많이 창피하고 속상해요. 그래서 제 꿈은 무엇이냐면요, 둘로 분단된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뉴스에서 보면 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보고 함부로 하고 있거든요. 가뜰이나 작은 나라인데 둘로 나뉘어 있으니 힘이 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큰 힘을 가지려면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도 독일이 통일이 된 거 아시잖아요. 통일이 빨리 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정책과 환율 문제 등등의 문제가 많더라고요. 독일처럼 갑작스러운 통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된 통일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할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산다면 힘이 있는 나라가 될 거라 믿고 있어요. 동생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리더십도 길러 전교 회장이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중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수학과 영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고요. 저는 외교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보다 강한 강대국이 많지만요, 제가 어른이 되어선 내 후손들에게 약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 이런 일도 나라사랑 맞지요? 할아버지, 또 뵈러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난 현충원을 찾았다. 현충원에 오면 왠지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짐과 동시에 숙연함을 느낀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현충원에 오신 지가 벌써 12년이나 되었다.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현충원에 온 지도 12년이나 되었다. 난 6·25 참전 용사이신 우리 할아버지가 존경스럽다. 그리고 여기 현충원에 계신 게 자랑스럽다.

나는 현충원을 돌아보며 마음 깊이 남는 것이 있었다.

‘조국과 겨레는 나의 사랑, 나의 영광, 나의 힘, 나의 생명. 그를 위해 짧은 일생을 바쳐 그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이다.

나 또한 조국을 위해 나의 힘, 나의 열정을 바치리라, 굳게 다짐했다.

나의 조국, 나의 전성시대를. 🌸





특별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유관순 열사와 독립운동가분들



김승주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1학년

우리에게 항상 '3·1운동하면 떠오르는 것은?'하고 질문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대부분 '유관순 열사요!'이다. 하지만 나는 그 답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요!'라고 말이다. 만약 유관순 열사만 3·1운동에 뛰어들었다면 일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유관순 열사 외의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을 기억해야 한다.

유관순 열사가 고향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유관순 열사의 친구들 덕분이다. 유관순 열사가 처음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독립운동을 하자고 하였을 때, 만약 내가 그 친구들 중 한 명이었다면 나는 절대 동의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형제와 자매가 죽고, 자신의 부모님이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 만약 동의를 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면 자신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나였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유관순 열사와 나 자신을 원망했을 것이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나의 선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구나.', '내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유관순 열사와 유관순 열사의 친구들은 끝까지 저항하

섰고, 결국 지금의 우리나라를 있게 해주신 분들이시다. 그러므로 3·1운동 하면 유관순 열사 분만 떠올릴 게 아니라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의 희생도 생각해야 한다. 나는 앞으로 3·1운동 때 자신의 이웃, 친구, 부모님, 형제·자매가 죽는 것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면서까지 태극기를 손에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분들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





특별상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5월의 안중근, 그리고 나의 결심



이 효 춘천 대통령중학교 2학년

안중근 의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안중근 의사님께서 만들어주신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이효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민족의 혼을 깃뚫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을 읽고 진정한 정의로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일제에 굴하지 않고 대항하며 순국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안중근 의사의 순국이 결코 헛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사의 순국이 헛되게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를 포함한 여러 독립운동가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되찾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헬 조선’의 뜻은 ‘지옥 같은 대한민국’인데요, 제가 왜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말을 쓰는지 아버지께 여쭙어보았습니다. ‘아빠, 왜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단어를 쓰는 거죠?’ “일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조금 다르다고 국가에 대한 불평을 넘어서 지옥으로 표현하다니, 이건 순국선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불과 80~90년 전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그때야말로 암울한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폄훼는 결국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반인륜적인 패륜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옥인지 천국인지 따지기 전 누구에 의해 나 자신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강대국이라 불리기도 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은 세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훌륭한 조상들에 의해 나라의 기틀을 잡았고, 빼앗길 것만 같았던 조국을 지켜내고 되찾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님과 같은 독립운동가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조선계 일본인’으로 살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국가를 아끼고 자부심을 가져서 애국을 실천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바른 역사 지식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특별상

육군참모총장상

반짝이는 별을 닮은 대한민국 의병들에게

정혜나 양진중학교 3학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름 없는 것이 이름이 있는 것만큼 멋있을 때도 있죠. 밤하늘에 새겨진 별들과, 길가에 핀 작은 꽃처럼요.

그중에서 밤하늘의 별과 대한민국의 의병은 분명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밝게 빛나고, 망각하기 십상이죠. 하지만 한번 의식하게 된다면, 그 눈부신 빛에 고개가 떨궈집니다.

그런 빛나는 유성처럼 살다 간 당신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당신들이 흘린 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일어섰고, 뜨거운 눈물로 당신들이 꿈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멋진 경주를 마치고 제게 차례를 넘겼으니, 이젠 제가 꼭 잡고 달려야겠습니다. 그럼 부디 경기를 관람해주세요. ✈



특별상

해군참모총장상

나는 잊지 않겠다



이채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3학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판문점, 긴장되던 그 공간이. 초등학교 6학년, 판문점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비무장지대로 들어섰을 때 설렘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북한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무서웠다. 판문점으로 들어서 군사정전위 본회의장을 앞에 두고 서 있었다. 노란 선. 그 선만 넘으면 바로 북한이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선이 그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을까? 집으로 가는 길에도 내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 지금의 자유를, 편안함을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고 있던 것이. 그때부터였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간직하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일 년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오게 되었다. 참배를 드리고, 비석 닦고, 화병을 바로 세워 드리는. 1학년 때는 친구들과 놀 생각에 사로잡혀 제대로 닦지 않았었다. 그런 마음으로 비석을 닦던 내 곁으로 선생님이 다가오셨다. 비석에 적힌 내용을 읊조리고 계셨다. 선생님의 모습에 호기심이 생겨 비석의 내용을 읽어보았다. 적혀진 내용이 제각각이었다. 성함만 적혀있거나, 날짜 또는 전투 이름과 함께 적힌 비석도 있었다. 궁금해졌다. 왜 적혀진 내용이 다른 것일까? 나중에서야 찾아보았다. 전쟁터에서 순국하셨지만 신원확인이 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어디서 순국하셨는지 알 수 없는 분도 계셨다. 부끄러웠다. 열심히 비석을 닦는 게 아닌 놀

트벌상
크르오

해병대사령관상

아로새기다

한주는 서문여자중학교 2학년

나라를 향한 사랑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곳
되찾으려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곳
왜 나는 이곳에 와서야
그 마음을 느끼는지

끝없이 뻗어있는 그들의 숨과
아직까지 나라를 향한 사랑이
세기를 넘어서 이제서야 닿았는지
왜 나는 여태껏 그들의 흘린 피를
머금지 못했는지
그들의 시대가 어두우면서 아름다운 걸 알지 못했는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가족과 나의 땅을
사랑하는 것이란 걸
알지 못했는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삶 뒤에는 수없이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힘들게 지켜낸 우리나라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 희생들의 의미를 잃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훌륭한 나라이지만 마음 한편에 힘들었던 시절을 담아두고 항상 감사해야 한다. 많은 애국지사분들이 바라시던 이 멋진 세상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현충원에 모셔진 수없이 많은 유공자분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인물과 사건들을 배우고 줄줄이 암기하는 것보다 현충원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하나 새겨진 이름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의 소중함, 감사함을 마음속 깊이 담아갈 수 있었다.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통일이다. 우리 민족, 또 국가를 생각하며 노력하신 것에 알맞지 않게, 지금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애국지사분들은 분단된 국가, 이산된 가족을 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위대한 노력들에 힘입어 통일로써 우리 민족, 국가를 지켜나가는 것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일이다. 많은 애국지사분들께서 이루어내신 것을 잊지 않고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함을 마음에 새기며 평화통일까지 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모든 순국선열분들, 저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잊지 않고 계승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
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상

경기도교육감상

51-4-02 묘역에 서서



우다은 경기도 양평군

저는 오늘도 그대의 묘비 한편에 자리를 잡습니다. 속도 모르고 푸르게, 더 파랗게 자라대는 잔디는 한없이 싱그럽기만 합니다. 은회색의 반짝이는 비석에 오롯이 새겨진 그대의 이름 세 글자를 가만히 따라가 보자니, 1965년 시월의 찢자국이 그대로 제 몸을 타고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대의 이름을 보며 눈물짓습니다. 흰 장갑을 끼고 쓰다듬어 볼 그대의 숨결이 내게 시원하게, 그러면서도 온화하게 들어오는 듯합니다. 그대의 곁에서, 꼭 내 고향만 같은 이곳에서 저는 또 마음속으로 그대의 이름을 울부짖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수백 번씩 되뇌었던 말들을, 오늘은 겉으로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누구나 지니고 있겠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차마 내뱉지 못한 말들에게 사과를 건네며, 오늘은 마음껏 그대에게 목소리를 내어봅니다. 학생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대에게 때론 되묻기도 해 봅니다.

“그대가 만들고자 했던 대한민국. 우리의 영원한 조국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대가 목숨 바쳐 조국을 지켜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오늘, 다섯 번째로 그대의 앞에 와 섰습니다. 51-4-02 묘비에서 들려오는 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제가 묻고자 했던, 얻고자 했던 대답이 내게 돌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대의 혼, 한, 그리고 숨 앞에서

그대의 젊음과 희생을 가슴 깊숙이 새겨봅니다.

‘평’하는 평음 속에 그대는 없습니다. 자욱이 긴 거무스름한 연기가 걷히고 나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잔뜩 찢긴 검갈색의 군화 한 켤레뿐입니다.

여기, 그대의 묘비 앞에, 그대의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한 학생이 섰습니다. 그대의 숭고하고도 명예로웠던 희생에 눈물짓고, 몇 번이고 외웠던 사관생도 신도를 다시 한 번, 그대 앞에서 외쳐 보는 대한민국, 그대의 조국의 미래가 섰습니다. 군복을 입고 행할 수 있는 명예로운 것을 모두 해낸 그대가 머무는 이곳에, 그대의 묘비를 매만지며 하염없이 그대를 따르고자 하는 제가 섰습니다. 조국이 후손으로, 그대의 후손으로 그대를 기억하고, 기리며, 그대처럼 조국에 목숨 바치고자 하는 대한의 미래가 오늘, 그대 앞에 섰습니다.

소령님, 사실 저는 두렵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저조차도, 그대의 뒤를 따를 수 있을지, 그대처럼 명예로울 수 있을지 고민하니 겁도 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대가 목숨 바쳐 지켜낸 내 조국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대를 되웁니다. 항상 기리고자 하지만, 때로 잊어버려도, 그대는 여전히 이곳, 현충원 한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필히 막힘이 생길 때면 그대의 이름 석 자를 떠올리며 곳곳이 견뎌낼 힘을 얻을 것입니다.

2019년 5월 11일 토요일

51-4-02 묘비 앞에서

강재구 소령님께





특별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누구의 묘지입니까?

김가량 전주 호남제일고등학교 3학년

이름 없는 그대에게

그대에 대해 알기 위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땅속의 흙 한 줌을 이불 삼아 품 안에 넣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대를 잊고 있던 수많은 물결. 이제는 살아있는 시간 동안, 피부 속으로 스며드는 모든 감각을 꺼내는 동안, 그대를 내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의 땅에 고이 품어두고자 합니다. 아아, 이름 없는 그대여! 당신이 남긴 땀가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제 흩어져 차디찬 바람이 그대를 품었습니까. 입고 있던 군복, 탄창은 어찌 이리 녹슬고 썩어가고 있던 것입니까.

그대의 흔적은 동료가 지켜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자식일 수도, 형제일 수도, 연인일 수도 있는 당신을 잠시나마 품어주었습니다. 잊혀질지도 모르던 당신을, 육체에 피가 고여 상처가 끓아가고 죽을 각오로 살려내서 고귀한 희생을 실현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과정 속에서 그대란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빌었던가요. 죽음을 무릅쓰고 산으로 올라가 땅 속 전우들
에게 맡기고 돌아오는 과정 또한 험난했으리라 믿습니다. 업어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절규가 울려 퍼졌을지 상상하기가 감히 두렵습니다.

그대의 이름을 알리고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피
몰아치는 폭풍이 끝나고 나라가 세워지고 완전히 자립해도 그는 잊지 않고

당신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의 확고한 의지를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군인이었던 당신과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평화롭고 고요하게 움직이는 하늘, 태양이 우리에게 전하는 푸른 녹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살생이 오가며 핏자국이 가득했던 땅을 밟으며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입니다. 빨간 마후라를 두르고 별을 등지며 앞을 내다보는 우리는 잠시도 아닌 오랫동안 이 세상에 있는 별들 중 하나인 그대를 잊고 말았습니다.

개미의 몸뚱아리만 한 벌은 많은 일을 해내었습니다. 작고 오돌토돌하게 빛을 내는 그것들이 먹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니 뭉클하고 투명한 슬픔의 열매가 맺혀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대들의 작은 희생을 알아가서 다행입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육체의 가족을 쥐고 송고한 맹세를 느끼는 무궁화가 되어, 나는 당신을 포함한 수많은 마음을 일편단심으로 삼고자 합니다. 땅속에 박힌 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름 하나 없고 살아있을 적 부여받은 번호만 새겨져 있을 뿐, 꽃봉오리 하나 없이 잊혀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지킨 소중한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곳이 아름다운 혼이 있었음을, 돌보다 강인하고 적들보다 고귀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이제부터 알려고 합니다. 나는 이름 없는 묘들을 찬찬히 밟으며 비석을 쓰다듬어 봅니다. 햇빛에 스며들지 못해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이 흑한기를 탄창 열 개만 믿고 버텼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들에게 잊혀질 각오를 한 그대여, 부디 새싹이 되어주소서.

잊혀진 당신의 이름은 김수영이고, 그대를 구한 사람은 황규만 소대장입니다.





특별상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싸구려 소설



강재현 상문고등학교 2학년

군악대에 속한 형이 연주를 시작하는 것은 6시 즈음이다. 나는 문예 수업이 있는 예고 기숙사에서, 부모님은 본가에서, 형은 부대에서 나와 현충원에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기로 한 것이다. 행사 전후로 형을 만나게 될 것인데, 내가 현충원에 도착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마주하는 것은 형만이 아니다.

가만히 기다리기도 뭘해서 온 김에 현충원을 둘러보기로 했다. 천천히 주변을 걷다 보니 몸이 적당히 덥혀져 코트를 벗었다. 묘역 주변을 걸을 즈음에는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그의 모습이 처음 눈에 띄었을 때는 이미 노을이 만연한 상태였다. 각각 다른 이름을 품에 지닌 똑같은 모양의 비석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그 무게감에 병적으로마저 비치는 풍경을 그는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묘역 둘레길을 걷던 나는 그에게 점점 다가갔다. 선홍빛 하늘과 회색빛 비석 사이에 각 잡힌 자세로 우뚝 서 있는 그의 모습은 퇴역군인을 연상시켰다. 더 가까워지니 그저 연상이 아니었다. 그는 빛바랜 영국 군복을 입고 있었다. 노을빛 사이로 그의 얼굴도 살짝 보였다. 그의 옆을 스쳐갈 땐 그의 오묘한 표정이 보였다. 무표정 같지만, 이것저것 섞여 애매하게 된 그런 표정이었다. 후회나 낙심, 혹은 그의 슬픔이 단지 묘를 향한 것만이 아니기에 그런 표정이 지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이 시작됐다. 그의 표정을 보자 평소 습관대로 이런저런 상상이 전개된 것이다. 걸으면서 그에게서 멀어질수

록 그 밀도가 높아졌다. 그가 있던 자리를 순간 돌아보자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때 마침 그의 옆을 군부대가 지나갔다. 한국 공군이었다. 그들이 경례하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는 내 상상에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영국공군의 파일럿이었다.

휴전 협상이 시작되자 공산군의 보급로 차단을 위해 요점을 폭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폭격기 부대에 배치되고 나서 그 명령으로 이미 수많은 폭격이 진행됐다. 이번의 출격도 그것과 같았다. 그동안 2차 대전으로 숙련된 미국, 영국의 공군을 상대하기에 머릿수만 많은 중국 공군은 우리에게 쉽게 길을 열어줬다.

‘유니콘 리더에서, 전방에 상대의 존재가 보고됐다. 이상.’

고도는 아직 높았다. 작전의 지점까진 꽤 거리가 남은 것이다. 이번의 그들은 너무 빨랐다. 이전과는 달랐다. 미국의 B-29 폭격기는 나의 것을 포함해 세 대의 스핏파이어가 호위 중이었다. 이런 구성의 여섯 편대가 역 V자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역 V의 좌측 끝의 호위기 하나가 떨어졌다.

‘리더기에서, 후방에 상대가 나타났다. 좌로 회피 운동, 동시에 요격하라. 이상.’

다른 기체와 마찬가지로 답신한 후 조종간을 기울였다. 조종석의 거울로 상대의 모습이 보였다. 네 대씩 무리 지어 폭격기를 쫓고 있었다. 고도는 이쪽이 높았다. 선회 도중 1호기와 짝지어 하강했다. 우리 아래로 지나쳐 폭격기로 향하는 놈들 중 하나의 뒤로 다가갔다. 밑의 상대와 내가 나란해지자 기총을 갈겼다. 둔탁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었다. 1호기도 한 놈을 잡은 모양이었다. 리더기는 조금 위에서 하나의 꼬리를 물었다. 그 하나의 움직임은 조금 달랐다. 리더기의 고도가 그와 거의 같아질 때까지 그 하나는 회피하며 살아있었다. 그러다 나머지 하나가 리더의 꼬리를 잡았다. 무전을 켜 그때였다. 리더기가 연기를 내며 떨어졌다. 상대 기체들은 급선회하여 나와 1호기

에 페이스 투 페이스 상태로 나와 기총을 맞으며 스쳐 지나갔다. 또다시 폭발음. 1호기가 떨어졌다. 난 그들을 향해 기체를 틀며 생각했다. 상대 조종석에 타 있던 자는 백인이었다. 설마 소련이... 그렇다면 저쪽도 2차 대전 참전자다. 그들을 쫓는데 방향이 아군 폭격기 쪽으로 틀어졌다. 이번이 마지막이란 것을 감각적으로 알아챘다. 이번에 저 둘을 잡지 못하면 폭격기가 당한다. 보급로 요충지를 치는 스트랭글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소련 공군의 베테랑 파일럿들의 개입이 요인이었다. 그 결과 남은 폭격 부대는 일본에 실시해 효과를 보았던 전략 폭격을 하게 됐다. 북한의 산업시설을 괴멸시키기 위한, 북한 전역에 대한 대규모 폭격이었다. 연기로 자욱한 회색빛 하늘과 불타는 선풍빛 대지 사이를 날며 난 조종석을 떠나자고 결심했다.

망상에서 깨어나자 어느 틈에 완벽히 어두워져 있었다. 소설 감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은 싸구려 소설뿐인 것이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학생의 망상일 뿐이다. 하지만 망상에서 건진 것은 있었다. 정확히는 그 퇴역 군인을 보고 건진 것이겠지. 형이 입대하는 모습을 보고, 청년의 한창때를 군대가 빼앗아간다는 말을 듣고 자라면서 군대가 좋게 보일 리는 없었다. 하지만 군인은 그것과는 다른 눈으로 보아야 했었다. 참전용사도, 현역 군인도 감사와 존경을 담아 봐야 했다. 나도 입대한다는 공포감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난 오랫동안 그렇지 않았다. ✈



특별상

육군참모총장상

선열의 온기를 거닐다



정선우 서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호국영령의 넋이 살아 숨쉬는
오월의 햇살 가득 머금은 현충원
단 하루도 참배를 잊은 적 없는 이곳에선
수많은 죽음도 빛나는 햇살이 된다

가지런히 늘어선 묘비 앞을 거닐면
봄바람에 살랑이는 애국자의 유흔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땔 때마다
영령들의 목소리가 하나 둘 울려 퍼지는데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는 이 묘비는
과연 몇 번째 빛나는 죽음일까

헤아릴 수 없는 그 역사의 시간들을
더문더문 짊으며 따라가자
승고한 희생의 순간들이, 그 소리가
겨레얼 마당에서 재생되고 있었다
꺾인 잔디들도 선열을 향해 묵념 중



값진 순국의 숨결이 가득한 이곳에선
그 숨결을 지키는 저마다의 근조화도
밤낮없이 그들을 추앙하고 있다
쉽 없이 그들의 충의를 물려받으며
곳곳이 시들지 않을 근조화의 지조

유난히 뜨거운 오월의 햇살 아래
뜨겁게 달궈진 현충원의 온기가,
충렬처럼 푸른 잔디와 나뭇잎들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가득 물들이고 있었다 ✚



특별상

해군참모총장상

푸른 묘비



정다원 화성 창의고등학교 3학년

어디선가 열린 북서풍이 불어왔다. 바람을 타고 풀냄새가 콧잔등에 내려앉았다. 찰랑거리는 머리칼 사이로 할아버지의 이름이 보였다. 할아버지의 이름 석 자가 박힌 회색 묘비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참호 속에 들어간 적들과 혈전을 벌이셨다는 김만술 대위. 그에 대한 얘기를 할아버지는 늘 자랑처럼 말씀하시곤 했다. 나는 오늘 현충원에서 김만술 대위의 묘역을 포함해서, 어쩌면 할아버지의 동료였을지도 모를 분들까지 만나보았다.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진 나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할아버지...”

나는 가지고 온 푸른 물망초 꽃다발을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 놓았다. 눈을 감으면 녹슨 철모를 매만지는 할아버지가 아른거렸다. 다시 바람이 불었다. 현충원 한쪽에 자리 잡은 장병 묘역에서, 나는 금세 추억에 젖어 들었다.

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였다. 할아버지의 가슴팍에 달린 국가유공자 배지가 햇볕을 받아 반짝거렸다. 할아버지, 진지 드세요. 내 말에도 할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녹슨 철모를 매만지고 있었다.

“내가 갈 때가 됐나보다, 나 죽으면 이 철모는 현충원에 기증해다오.”

할아버지는 자주 철모를 만지며 어딘가 서글픈 눈을 하시곤 했다. 그날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듯이.

이거 쓰고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웠지. 전쟁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여. 연휴

가 다가오고 온 가족이 모이자, 할아버지는 익숙하게 전쟁터 얘기를 꺼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마치 그 얘기가 다른 나라의 역사가 되어 버린 것 같았다. 싸늘한 공기에 할아버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꺾어보지 못 한 이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한겨울의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역사는 남겨진 이들에게 늘 무심했다.

비좁은 방 안에서 할아버지는 또 철모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얗게 섀 그의 머리카락이 할아버지가 견뎌온 세월을 말해주는 듯했다.

“시간이 더 흐르면 6·25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겠구먼...”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떨궜다. 나는 그런 할아버지에게 어떤 위로조차 건넬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어깨가 열게 떨리고 있었으므로.

푸르스름한 물망초가 풀냄새와 뒤섞여 코끝에 매달렸다. 현충원을 이루는 한 조각이 된 할아버지. 나는 멍하니 할아버지의 묘비를 건너다보았다. 어쩐지 할아버지의 이름이 자랑스러워 보였다. 하늘에서는 벌써 불그스름한 노을이 흘러 들어왔다. 핏자국처럼 번지는 노을에도, 물망초는 여전히 푸른빛으로 흔들렸다. 물망초의 꽃말,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늘색 꽃잎은 시들더라도 사계절 내내 파랗게 타오를 것이다. 일평생 조국을 위해 싸우고 견뎌냈던 할아버지처럼. 나는 쉽사리 걸음을 떼지 못 한 채, 오랫동안 묘비 앞에 머물러 있었다. 할아버지에 대한 나의 그리움이 현충원 곳곳에 번져나가고 있었다. ✧



특별상

공군참모총장상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 유관순



양은정 여의도여자고등학교 2학년

유관순 언니께

안녕하세요? 유관순 언니. 저는 역사 선생님을 꿈꾸는 여고생, 양은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언니께 감사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저는 언니께 세 가지 관점에서 감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언니께서 3·1운동에서 보여주신 활약에 감사드려요. 언니께서는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많은 군중에서 태극기를 나누어주시고 앞장서서 시위를 주도하셨다고 배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이끄는 것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심했기 때문이에요. 무력통치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들키면 곧장 감옥으로 끌려가는 일이 빈번했고, 몸 성히 나오는 일이 드물었어요. 동시대에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도 다 비밀결사이거나 일제의 눈초리를 피해 해외에서 활동했지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3·1운동이라는 거족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셨던 점에서 매우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언니 덕분에 국내외에 민족의 주체성을 확인시키고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3·1운동이 확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자주적인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의 우리나라가 완벽한 강대국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중국과 미국 사이

에 끼여 미국이 관세를 높여서 국민들의 근심이 높아지고, 중국의 경제문제가 고스란히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등 지리적 위치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민족이 겪는 불이익은 지금의 100배는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행복하고, 한류로 전 세계에 뻗어 나가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요.

두 번째로, 여성과 학생으로서 유관순 언니께 감사드려요. 3·1운동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서 갖은 고문을 받고 순국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언니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봤는데 잔인한 고문 장면이 나오더군요. 손톱 끝을 찌르고 벽장 안에 가두고 굶기는 행위는 같은 인간으로서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대한독립을 외치는 언니의 두 눈에는 애국심이 가득했습니다. 19살이면 저와 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어린 나이에요. 지금이었다면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꾸는 10대였을 텐데 자신의 청춘을 독립에 불태운 언니가 같은 학생으로서 당시 독립 의지를 가진 학생들을 대표하는 것 같아 감사했어요. 또, 여자의 몸으로 더더욱 구타와 고문을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덕분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조명을 받게 되는 계기가 생긴 것 같아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역사 선생님을 꿈꾸는 학생으로서 언니께 감사해요. 만약 제제자가 독립운동을 한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언니를 알기 전의 저는 폭력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 제자를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관련 영화와 책, 동영상을 접한 후에는 언니와 같은 학생들을 배출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진다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식을 사용하고 활동할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싶어요.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참고서예요.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은 비슷하게 되풀이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언니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해야지 다시는 일제강점기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웃으며 지켜봐 주세요. 감사해요, 유관순 언니.



언니를 존경하는 양은정 올림





특별상

해병대사령관상

묵념 (默念)



천성주 경문고등학교 1학년

빛나는 비들 사이로 스쳐간 바람은
어디서 쓸쓸함을 싣고 온 걸까
아름다운 무궁화를 보면서도
왜 가슴이 아파지는 걸까
그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나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걸까

내 나이 17은
나라를 구하던 나이라고 한다
그러기에는 나는 너무 어린 걸까
눈 감아 기도하여 나는 나를 버린다

매일 늦잠 자는 나와
아침 먹기 싫다고 징징대는 나와
옷이 더럽다고 짜증 내는 나와
돈을 낭비하면서 부족하다고 하는 나

어렵다고 역사를 싫어하는 나와
이 삶을 감사하지 않는 나와
우리나라에 감사하지 않는 나와
오직 내 성공을 위해 공부하는 나

그들이 없는 대한민국은
물 없는 호수와 같다
저 수많은 연꽃들과
무리 모여 물을 먹는 오리들도
잔잔한 파도도 우직한 바위들도
물에 감사함을 느낀다

시원한 비들 사이로 비쳐온 햇빛은
나를 반성하게 만들고
나를 감사하게 만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

내 17라는 나이는
나라를 구하는 나이
그들을 기억함으로써
나의 사명을 다한다



특별상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이회영 선생님께



현승엽 경기도 구리시

이회영 선생님께

우당 이회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주권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 현승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을 이룩한 지 70여 년, 대한민국은 수많은 발전 끝에 튼튼한 국방과 경제를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순국 선열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독립된 조국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선생님께서 겪으셨을 시련을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선생님께서 독립군 양성을 위해 모든 재산을 바치셨습니다. 끼니조차 거를 만큼의 가난에 직면했지만, 독립의 열정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현충원에서 양식을 먹으면서 선생님께서는 그때 어떤 배고픔에 고통을 받으셨을지, 저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현충원의 '유품전시관'에는 선생님을 소개하는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께서는 애국의 삶을 지향하셨고, 후손들로부터 칭송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의 침략이 극도로 심해지자 의병들에게 필요한 군자금을 후원하셨고, 을사늑약의 체결에 맞서서 반대 운동을 펼치셨고, 경술국치의 비극이 닥치자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온갖 고통에 굴복하지 않으신 선생님께서는, 일제의 고문으로 끝내 순국하셨습

니다. 궁핍과 폭력에도 패배하지 않으셨던 선생님은, 숭고한 저항 정신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순에 가까운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무력 투쟁도 국민들의 귀감으로 남을 것입니다.

당시 한반도는 일제의 침략으로 신음하고 있었으며, 내부의 친일파들이 벌이는 매국 행위도 실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을사오적이 외교권을 침략자들에게 바치고, 친일 탐관오리들이 토지를 팔아넘기고, 1910년에는 기어코 주권마저도 강탈당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본래 명문가의 일원이셨고, 일제에 협조하셨다면 더 많은 재물과 토지를 누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런 망국 행위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하셨습니다. 일신의 영달이 아닌 조국의 독립만을 꿈꾸셨습니다. 결단코 '이회영'이라는 이름 석 자를 더럽히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재산을 처분하신 뒤 외국 땅에서 독립 투쟁에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의뿐 아니라, 용기와 결단력도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어록을 잇을 수 없습니다.

“생과 사는 다 같이 인생의 일면인데 사를 두려워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늘에 맡기고 사명과 의무를 다하려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가치 있는가.”

선생님의 이 말씀은 몇 번을 읽어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순국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말의 후회조차 하지 않으신 선생님, 비상식적인 야만의 시대에서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셨던 선생님.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선생님을 뵈게 된 건 형용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선생님의 발자취를 되새기니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데 주저하고, 또래 친구들이 재밌는 여행을 갈 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비루한 옷차림인 자신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백만 배는 더 어려운 환경에서 독립을 향한 실천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제 신세를 계속 한탄하는 건 정말 철없는 거라는 반성을 했습니다. 도전에 실패해도, 살림이 부족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교훈을 선생님 덕분에 배웠습니다.

‘세한송백(歲寒松柏)’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추운 계절에도 잎이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굳은 절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의 거목으로서 언제나 절개를 깨끗이 하셨습니다. 손쉬운 부귀영화가 아닌 힘든 조국 독립을 갈망하셨습니다. 그렇게 비단길을 마다하고 가시밭길을 걸으셨습니다. 선생님을 비롯한 애국지사 위인들의 끈기와 업적이 밑거름 되어, 삼천리 금수강산에 독립의 날이 도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보면 선생님께서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힘든 일들을 앞장서서 이룩하셨습니다. 역사적이고 위대한 승리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최악과 불의의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인간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목표로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꿈을 이루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선생님을 마음속의 참스승으로 모신 만큼, 그 정도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선생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독립운동의 본보기로 살아 숨 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의 앞에서 묵념할 때마다, '이회영'이라는 선생님의 높은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생애에 오랜 고생을 하셨던 이회영 선생님, 하늘에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11일 현충원에서
현승엽 올림



장려상

내가 다시 알게 된 역사



김민겸 성남 낙생초등학교 6학년

나는 5학년 때, 역사 선생님인 엄마에게 한국사 수업을 받았다. 그때 당시에 난 철없던 아이였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주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

수업 내용 이해의 명분으로 나는 엄마와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다. 그곳에 갈 때, 나는 잔뜩 기대에 차있었다. 모든 것이 재미있고 의미 있을 것만 같았지만, 막상 가보니 그렇지 않았다. 대부분 글만 읽고, 중간 중간 조금씩 있던 체험 코스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도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었다. 6·25 전쟁과 일제강점기 당시에 희생되신 참전용사분들과 독립운동가분들께 대한 감사함도 있었다. 또한, 이우근 학도병이 전쟁 중에 작성한 편지를 읽고는 ‘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불쌍하다.’라고 느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은 ‘재미도 없고, 내가 여기 왜 왔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도, 고대와 근대 역사 모두 관련된 박물관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제대로 된 감성과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나는 현충원에 대해 학교에서 친구들의 대화와 뉴스에서 들은 것밖에 없었다. 즉, 현충원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저 다른 기념관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궁금증이 생겼다. 그 궁금증을 가지고 나는 오늘 현충원에 오게 되었다.

현충원에 오고 나서, 현충원 전시관에 방문했다. 추모실 입구의 분위기에

나는 무언가 다름을 느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전용사와 독립투사들의 업적에 놀랐다. 학교에서 역사를 잘 아는 편인 내가 이름도 모르는 독립투사들이 받은 훈장과, 독립투쟁 당시의 일을 외국에 알리는 일 등 내가 역사를 아예 모르는 것 같았다. 이번에도 이우근 학도병의 편지를 보았는데, 저번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 학도병은 내 형의 나이 또래였다. 만약 내 형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마음이 아프고 울었을 것 같다. 이 감정을 생각하며 편지를 읽으니 학도병 가족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시관을 둘러보다 '육탄 10용사'를 보게 되었다. 그들의 업적을 보니 얼마나 무서웠을지, 나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을 희생하는 이런 행동을,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힘들 것이다. 내 속마음은 감사함과 숙연함으로 가득 찼다.

독립투쟁가분들과 참전용사분들께서 자신을 희생해 조국을 지킨 것은 그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였는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움직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나는 그들의 후세로서 아마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한 마디를 건네고 싶다.

“당신이 있음으로써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



장려상

그대는 별



배효주 군포 능내초등학교 5학년

오늘, 가족과 함께 자연과 어우러진 현충원에 왔다.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미세먼지도 없는 데다가, 현충원에 들어가자마자, 싱그러운 늦봄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살랑살랑 불어왔다. 정말 기분 좋은 날이다.

유품전시관을 보고난 뒤, 무후선열제단분들의 위패를 보려고, 묘지 사이에 있는 길을 따라 올라갔다. 묘지들을 보면서,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마음대로 빼앗지 않았으면, 북한이 남침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분들은 어떻게 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분들은 각자의 재능과 신념을 가지고, 빛나는 별처럼 열심히 살지 않으셨을까 싶다. 하지만, 말해주고 싶다. 수고한 임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 더울 때 불어오는 바람이 타고, 그대들이 지켜낸 정원, 우리가 잘 가꾸고 있다고, 그대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고, 그대들은 각자의 밤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고 말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무후선열제단분들의 위패 앞에서 묵념을 했다.

묵념을 하고 내려오면서, 한 까치를 보았다. 까치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고, 묘비 위에 계속 있었다. 마치, 까치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는 것 같았다. 까치를 보면서, '내가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을 위해 힘쓰신 분들에게, 그 나라의 국민이 할 수 없는 게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마침 그때, 자원봉사자분들이 지나가셨다. 수건을 들고, 묘비를 하나하나 닦으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나도 봉사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임들은 어디 계실까? 그건 바로, 밤, 아침 하늘에 계시다. 아침에는 햇살이 되고, 밤에는 별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비추는 찬란하고 밝은 빛은 말한다. 임들이 빛나기에 우리가 있다고 말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름다운 나무, 이름 모를 들꽃이 잘 가꾸어져 있는 길을 내려왔다. 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재교육원에서, 과학, 수학, 그에 관련된 것을 잘 배우고 있다. 이런 것들로 나의 힘을 길러서, 다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거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현충원에 계신 분들처럼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힘을 보탬 것이다. 🌱



장려상

잊지 않겠습니다



배정주 군포 능내초등학교 2학년

오늘 현충원에 왔다. 현충원 안에 전시관이 있었다. 전시관을 둘러보니, 피 묻은 태극기가 있고, 깨진 모자와 조그마한 생수통이 있었다. 먼 곳을 뛰고, 걷고, 힘들었을 텐데, 마실 수 있는 물이 고작 작은 생수통뿐이라니... 나였으면 포기하고 아무 것도 못 했을 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

묘지로 올라가니,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만세운동과 전투를 하시고,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이 잠들어 계셨다. 나는 묘지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지만, 그분들은 거칠고, 험한 길을 걷고, 걷고, 계속 걸으신 아픈 다리와 독립을 위한 아픈 마음이 있으시니, 얼마나 더 힘들셨을까?

비록 돌아가셨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살아계신다. 우리 마음속에서 잊지 않으면 좋겠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다. 우리가 그 분들이 얼마나 힘들셨을지는 잘 모르지만, 생각만이라도 함께 힘들을 나뉘드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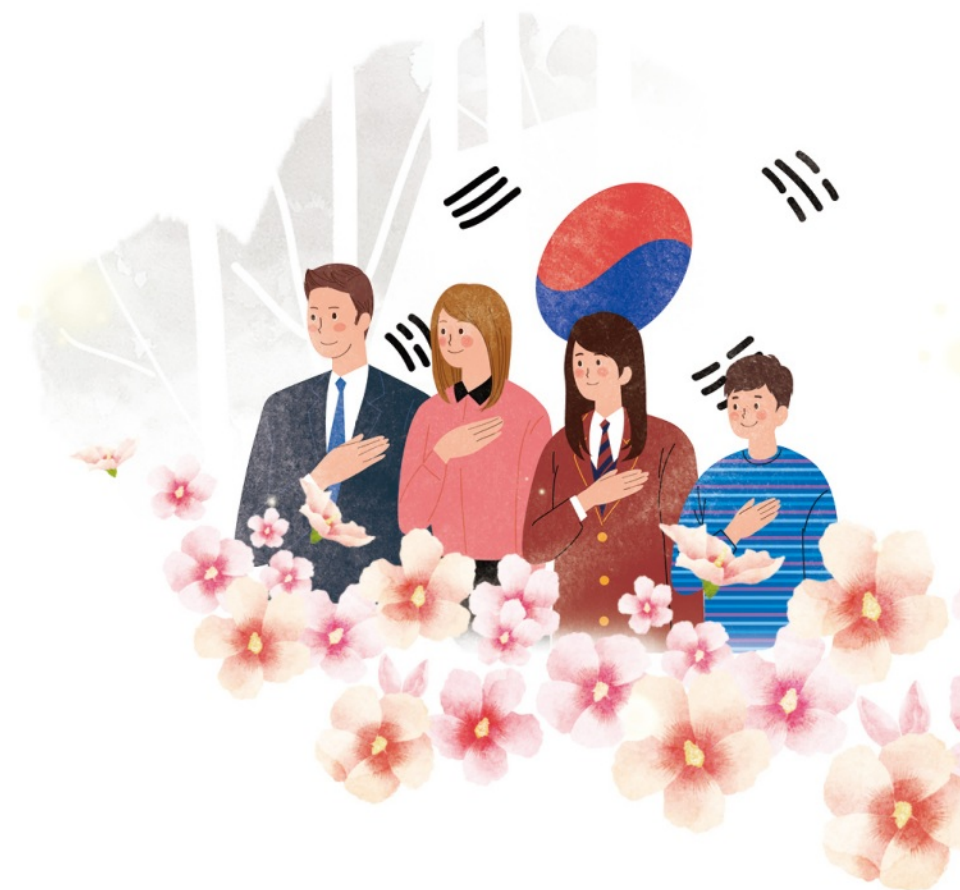
3·1운동에 힘쓰신 분들은 올해 100주년을 맞아, 기뻐하실 수도, 슬퍼하실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독립이 된 모습은 기쁘실 테지만 독립운동을 하던 힘든 생활이 기억나서 슬프실 것 같다.

묘에는 무후선열제단이 있었다. 거기에는 자손과 시신이 없으신 분들의 성함을 돌에 새겨 놓았다. 유명한 분의 성함 중 한 분이 '유관순'이셨다. 라이터

에 불을 붙여 향을 피웠다. 그 다음 인사를 드렸다. 나의 마음속에 그 성함들을 하나하나 다 외우고 싶었다.

묘지들의 언덕에서 한강이 보였다. 지금도 한강을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 같았다.

현충원 묘지에 잠들어 계신 그분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



장려상



현충원



박유범 서울가동초등학교 3학년

현충원……

희망이 가득한 곳

현충원……

용사들이 가득한 곳

현충원은 이렇게

나라사랑이 가득한 곳이다

현충원은 또

고마운 분들이 계시는 곳이다

오늘도 현충원에서

나는 감사한 마음과

숭고함을 느낀다

그리고 가슴에 맹세한다

현충원은 자랑스러움이 있는 곳이기

나는 고개 숙인다

나라사랑과

나라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신 영령들께

경례한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보니

엄숙한 마음이 들어

나는 묵념한다

현충원……

나라사랑이 잠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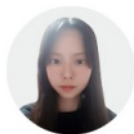
나의 마음도 순국선열들과

현충원에 있다 🌿



장려상

새하얀 마음



최지민 가락중학교 1학년

새하얀 벚꽃처럼
훑날리는 당신들의 순수한 마음
우리의 조국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오직 조국을 위하여
바친 당신들의 마음은
붉은 피로 변해
온 강산을 물들였습니다

당신들의 눈부시게
새하얀 마음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눈부신 아침을 맞아
그대들이 남긴 새하얀 비석 앞에
기도드립니다

당신들의 고귀한 마음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가장 행복하게 여길
평화 한가운데서
우리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



장려상

유관순 열사님께



손지원 영동중학교 2학년

존경하는 유관순 열사님, 안녕하세요. 열사님이 계신 곳은 어떤가요? 피와 투쟁으로 칠해진 청춘을 보내시고, 그 나이에 잠드신 만큼 평안히 잠들어 계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나라를 되찾았어요. 보고 계셨나요? 열사님과 같은 분들의 용기와, 정의를 위해, 조국을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셨던 마음 덕에 우리나라는 완벽히 민주적으로 독립했어요.

열사님께서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세요. 열사님께서 순국하실 때 17살이셨죠. 제가 이제 15살이니, 열사님께서 저보다 정확히 2살 많으실 때 그리 자신의 나라와 조국을 위해 몸을 내던지셨어요. 저는 열사님께서 무엇을 다짐하고, 무엇을 뒤로하며 만세운동을 주도하셨을지 상상도 가지 않아요. 제가 1년을 더 살아 16의 나이가 되면 당신처럼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용기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정말 먼 사람이에요. 쪽 그랬죠. 저는 몇 년을 더 살든, 당신이 만세운동을 직접 계획하던 16의 나이가 되든, 애초에 저에게 없던 용기가 갑자기 생겨나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저보다 한 살 많은 나이에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나라를 위해 한몸 불사를 수 있었던 당신의 용기는 어디에서 비롯했나요? 먼 훗날 제가 죽는다면 바로 당신을 찾아가 이 질문을 묻고 싶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그 용기에 지금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있어요. 이리도

자유롭게, 제게 이런 현재를 준 과거의 당신과 피 흘린 모두에게 감사하며 이리 앉아 편지를 쓸 수 있어요. 그 용기가 허무하지 않도록 영원히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게요. 다시 한번, 그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



장려상

그대가 원했던 삶은, 그 나라는



최유진 화성 동탄국제고등학교 2학년



스치는 바람의 풋 여름내,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하고도 벅차오르는 일일까요. 현충원 곳곳에는 벌써 산산한 여름 내가 가득합니다. 이곳 돌무덤 가에, 차분히 자리를 잡은 일련의 그림자가 우리의 역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잠시 이곳, 현충원에서 일상의 소리를 듣다 나와 꼭 같은 나이였을 그대가 떠오릅니다. 나는 거친 삶의 향이 묻어나는 그대를 가만히 정다운 각도로 기울여봅니다. 그 안에는 자꾸만 감추려던 여린 마음과 소녀같이 곱던 풀꽃의 진심이 자곡히 배어 있습니다. 그대는 어땠나요, 그대가 원하는 나라는 어땠나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어떤가요. 작고 고운 손으로 태극기를 꼬옥 움켜쥐고, 또 펼쳐내며 두려움을 지워내었을 그대가 그려집니다. 일상의 부조리함과 모순을 가진 형태들을 조금씩 맞추어나가기도 벅찬 지금의 나는, 그대가 단단히 매어놓았을 두려움의 문과 견고한 의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려 합니다. 그대의 움푹한 눈매는, 우리가 가질 수 없던 굵이의 '한'을 지니고 있었고, 혼 뿌리부터 찬찬히 나를 잠식해온 역사는 나를, 그대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대는, 자랄 수 없던, 하지만 그 이유조차 모르던 작은 풀잎들 사이에서 굳건히 자라난 풀꽃 즐기었고, 다른 잎들이 자신을 보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당신의 즐기까지 잘라내어 버린 잔인하고도 외로웠던 흑백의 역사에서 우리는 100여 년의 흐름, 그 뿌리를 찾고자 합니다. 단단한 벽에 부딪혀 다



시 당신에게 아리게 돌아왔는지 모를 외침이었다 해도, 적어도 나는 그 답답한 비명이 우리 역사의 기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틀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근원인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임시정부는 우리 국가의 뿌리와 얼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국가이며, 그 혼입니다. 부디 이 말이 그대에게 좋은 의미가 되었으면 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원했던 당신이 지금의 우리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당신에게 묻기가 조금은 두렵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역사에서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달려 나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그대가 원하던 그러한 삶인지, 또 그러한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싶습니다. 이 편지가, 조각이 되고 분토가 되어 작은 글귀라도 그대에게 닿는다면 잠시 바라봐주세요. 우리가 옳게 나아가고, 또 시간을 맞추어가고 있는지를. 언제나 그대의 끈고 처절한, 그러나 고귀한 그대의 목소리를 대지 곳곳에 새기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언젠가 그대의 삶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와 같은 나이였던 그대는 부모를 잃은 뒤에도, 그 누구에게도 무너짐을 보인 적이 없다고, 옥중 생활 와중에도 단 한 번도 흐느끼거나 두려움의 감정을 내비친 적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그렇다면 과연, 그 영웅은 시대의 결과이자 전유물인 걸까요. 당신은 그 자체로 영웅이었으며, 그대가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주체인 국민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은 당신처럼 국가의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과연, 어떠한 마음과 힘을 가졌기에 온전한 시대를 만들 수 있었나요. 우리 국가는 셀 수 없이 많은 주체와 영원히 노력하고 있지만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단순하고 쉬운 일이라면, 우리는 자꾸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도 우리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로 삶의 무게를 견디고 가쁜 숨을 내쉬며 살

아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 대지도 그대의 삶의 흔적이 내려앉은 지 100년이 되는 지금에, 우리의 국가의 의미에 대해, 그대가 꿈꿔온 국가에 대해 잠시라도 생각해보려 합니다. 현충원의 지붕이 가끔씩 잎새 사이 모습을 드러내는 초여름의 햇살 아래에서 그대에게 글을 보내고 있는, 지금 나의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저 이처럼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고, 국민으로서, 국가의 주체로서의 삶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국가는, 국가였으면 합니다. 역사가, 시대가 고요 속에 잠식하지 않고, 국가가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국가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그대의 답답한 비명을 내 마음 깊이 놓아 두며, 온 종과 대지가 울리도록, 안으로, 안으로 굽이굽이 내어뿜니다. 지금 국가의, 국가로서의 이곳에서.

‘대한 독립 만세’

유관순 열사에게 바치며





장려상

아카시아 꽃 향기



이정은 고척고등학교 3학년

큰할아버지! 제가 비록 직접 뵈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충원에 와서 백일장 글제를 확인하였는데 현충원에 모셔진 독립운동가에게 편지를 쓰라는 글제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큰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두 달 전, 할아버지 생신으로 인해 온 가족이 저녁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삼주일 뒤에 군대 가요. 그런데 가기가 싫어서 미치겠어요.” 오빠의 말에 할아버지는 말하셨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해 시간이 아깝다, 답답하고 불편할 것 같다 등의 이유로 군대 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나 독립운동가들께서 많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아.”

할아버지는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920년, 내가 열 살이었을 때, 너희에겐 큰 할아버지인 내 형은 스물다섯이었지. 그 때 형은 대학교를 열심히 다니던 중 일본에게서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가가 됐어.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은 일본 병사들에게 구타를 당한 적이 많았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어머니, 형, 나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는데 일본군들의 구타로 집은 항상 풍비박산이었단다. 어머니는 형에게 독립운동을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형은 그만두지 않았지. 그로 인해 어머니와 매일 싸웠어.”

“형, 엄마가 그만두라고 하는데 왜 계속 하는 거야? 우리집 이러다가 형 때문에 또 부서지면 어떡해?”

그 시절 할아버지는 큰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큰할아버지께서는 그 말에 할아버지의 팔을 부드럽게 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호진아, 형이 하는 일은 누군가는 꼭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일이야. 이 일은 형이 쉽게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일은 하면 할수록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대단한 일이야. 그러니까 호진이도 꼭 형 같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로 약속해.” 큰할아버지는 허리에 다 아물지 않은 총상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오빠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숙연해졌습니다. 특히 오빠의 얼굴을 보니, 많은 깨달음을 얻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큰할아버지! 지금의 대한민국은 큰할아버지 같은 분들로 인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살고 있는 후손으로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고, 오히려 불평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얻으려고만 했고, 가지려고만 했었습니다. 큰할아버지와 같은 독립운동가분들이 가장 찬란하고 빛이 나는 청춘을 바쳐 피로 얻은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겼고, 편안하게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내신 것에 누가 되지 않게 행동할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독립운동가분들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현충원에 도착해서 수많은 묘들을 보고 그 묘역 중 큰할아버지의 묘비에 서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의 후손들을 위해 하신 일을 다시 한 번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 와서 글을 쓰는데 달콤한 아카시아 꽃향이 바람을 타고 솔솔 제게로 다가와 제 마음을 더 울렸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애국심을 아카시아 꽃향기로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려상

유관순 열사께 바치는 편지

유은아 대전시 중구

얼마 전 <항거>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열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열사님의 생애 대해 많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 꽤 오랜 시간 동안 열사님에 대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히 들어온 이름이었지만 아우내 장터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다 어린 나이에 순국하였다는,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로 열사님을 이해했을 뿐 꽤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유관순 누나'라고 부르던 열사님의 나이를 지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열사님께서 만세운동을 하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신 그 나이에 저는 공부는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학교를 오가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며 편하게 지내던 걸 생각하면 열사님이 그 당시 얼마나 어린 나이였는지가 와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키고 싶은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소중한 것을 잃게 될까 봐, 혹은 자신이 지켜주지 못 하게 될까 봐 겁이 많아진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면 가족을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마음을 생

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읽고 넘어가거나 시험을 위해 기계처럼 달달 외우고 넘어갔던 분들의 업적이, 그분들의 생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독립을 위해 애쓰던 분들에게도 나라를 빼앗긴 설움 속에서 분명 지키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중한 자식을 잃게 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채 살아가야 하는 배우자와, 부모님의 부재를 평생 느끼며 살아야 하는 자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분들의 발목을 차마 잡을 수 없는 나라를 위한 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사님이라고 해서 어찌 고문이 고통스럽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다는 것도, 형무소 안에서도 만세운동을 이어나가셨다는 것도 이번에 영화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숭고한 정신 앞에서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충원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비석을 바라봅니다. 똑같이 생긴 묘비 하나 하나에 각기 다른 사연과 아픔과 피와 눈물이 서려 있다는 것을,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나이를 먹어 가면서 그 구체적인 무게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벽면을 가득 메운 애국지사들의 수형 기록표를 보고, 제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존재조차도 모르던 분들의 이름이 이토록 많다는 사실에 어찌나 부끄럽고 죄송하던지요.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이야기 위에서 살고 있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열사님께서 만세운동을 하신 지도 100년이 되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 바친 열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분들 덕분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당당하게 한국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덕분에 저는 이 땅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순

국선열들을 오래 기억하고, 이 땅에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이 저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열사님께서 조국의 평화를 오래 지켜보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드리며 초라한 저의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장려상

부끄러운 열병(閱兵)



정해인 경기도 고양시

간다
나이 사십 서울살이 오십 년 만에 처음

바람 불고
꽃피고
일상에서 만나던 녹음 속에
엄숙을 틀어쥐고 서 있는 침묵의 도열
숙연의 옷깃 여며 품에 안고
혼자 열병을 한다

병사들은 비명(碑名)으로 저마다 관동 성명을 대고
현화마저 없는 영혼들은 충혼을 빌어 내 손을 잡는데
드릴 것 없는 나는
부끄러움만 한 아름 내려놓고 몸 조아려 비석 만지며
편히 잠드소서 고했을 뿐





장려상

당신의 계절은



박세연 경기도 고양시

짙-하고 차갑던 그날의 한기는 어느덧 뜨거움이 되어 여름의 길목을 지나고 있습니다. 허나 그 겨울, 당신이 주신 온기는 여태껏 남고 남아 우리를 부드럽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제겐 언니였던, 친구였던, 이젠 동생이 되어버린 당신. 당신의 푸르던 청춘의 용기를 제가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당신에겐 꽃 피던 여름이었을 그날, 겨울을 외면하지 않은 당신 덕에 우리는 지금껏 당연한 내일을 꿈꾸고, 어제를 자랑스러워하며, 오늘을 지켜갑니다. 봄과 여름의 길목에서, 너무도 푸르른 하늘을 보며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눈부심 속에는 얼마나의 눈물들이 서려있을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이고 모여 비로소 눈부심이 되기까지 무수히 쌓인 그 희생들을 이젠 헤아려봅니다.

유독 길었던 그 겨울, 당신이 지켜낸 그 땅으로 100년이 지난 지금, 봄을 지나 여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찌면 사계는 겨울에서 가을인지도 모릅니다. 끝조차 보이지 않던 겨울 속, 봄이라는 것을 믿을 수도, 알 수도 없던 우리에게 햇빛을 보여주셨지요. 얼었던 눈물조차 도로 녹는 그 광경에 저희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계절이 수십 번 바뀌는 지금까지도 당신의 뜨거움이 무수한 겨울을 지켜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용기가 되었던 그때, 많은 것이 무서웠을 당신, 어릴 적부터 읽어오던 위인전 속 당신의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남겨가는 사이, 깨달았습니다. 그저 어린 학생이던 당신이 매서울 두려

움을 알면서도 지키고자 했던 건, 훗날의 우리를 위해서였나봅니다. ‘우리나라’라는 너무도 익숙한 이 말 속에 담긴 많은 풍경은 당신의 숭고한 희생들이 저희에게 주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과거인 당신, 우리들의 현재도 미래의 우리들에게 당신 같은 깊은 파스함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번 여름은 어떻게 가을이 될까요. 따갑기만 한 지금의 우리 여름을 부드러운 햇살로 성숙시켜 비로소 성숙의 가을이 되기까지 당신이 우리에게 맡기고 떠난 그 소중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당신 청춘의 온기를 기꺼이 세상과 나누어 저희에게 이 터전을 주신 것처럼, 저의 청춘도 당신의 가르침처럼 길이길이 남을 뜨거움으로 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겨울을 외면하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님, 당신의 사계는 어땠나요? 겨울에만 머물러 간 당신이지만 당신의 마음속은 가을을 기다리는 푸르던 여름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조차 언제나 춥던 겨울이었다 해도, 훗날의 저희가 굳건히 지켜가는 당신의 대한민국을 지켜봐 주세요. 당신이 저희에게 물려주신 파스한 온기를 이젠 저희가 드리고 싶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또다시 겨울이 되겠지만 훗날 대한민국의 또 다른 주인들도 길이길이 전해져오는 그 뜨거운 온기로 저마다의 가을을 맞이하겠지요.

지겹게도 길었던 100년 전 겨울, 당신들의 눈물은 눈부심으로 얼어 대한민국을 빔냈고 지금은 때때로 녹아 우리의 뜨거움이 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시원한 날씨, 몽실몽실 피어난 뭉게구름들, 초록빛 들판, 이 감사의 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아름다운 이 한글을 이토록 당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신 당신의 푸르던 용기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사계는 또 앞으로 어떨까요? 수많은 당신의 동생들이 기필코 우리의 겨울들을 이겨내겠습니다. 당신의 옛 뜨거움이 넘쳐흘렀던 것은 훗날의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였나 봅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여름 속 이 글을 쓰며, 부디 지금 당신의 마음속은 흐뭇한 가을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당신의 계절은 지금 파스한가요? 이곳은 따뜻하게 빛이 납니다. 🌿



아버지와 현충원



황영애 경상북도 경산시

선선한 공기가 가슴 깊숙이 들어온다. 오랜만에 미세먼지 없는 날을 맞이한다. 오월의 현충원은 눈이 부시다. 얼어있던 땅이 따듯한 기운을 받아 숨어있던 씨앗을 마른 풀 위로 올려보낸다. 나목으로 서 있던 나무들도 초록으로 모습을 가꾸기 시작한다. 꽃샘바람에 코끝에 확 스치는 꽃내음은 도시의 자리를 잇을 만큼 싱그럽다.

국립현충원에 첫발을 디뎠다. 느리게 아주 천천히 묘지 숲을 향해 걸어갔다. 생전에 아버지가 걸으셨던 길이다. 아버지는 6月만 되면 현충원을 방문하셨다. 영천호국원에서 시작하여 대전현충원, 마지막엔 서울현충원까지 그곳에 안장되어 있는 친구들을 둘러보고 오곤 하셨다. 세월이 흘러 걸음걸이가 편치 않을 때도 서울까지는 못가도 돌아가실 때까지 영천호국원에는 꼭 들르셨다. 당연히 아버지도 돌아가시면 현충원으로 가실 거라 생각했다. 자식들 생각과 달리 아버지는 학도병으로 어디서 죽었는지 끝내 유해를 찾지 못한 친구와 함께 갈 수 없다면 현충원에 갈 의미가 없다고 하셨다. 주변의 설득에도 친구를 찾게 되면 그때 같이 가게 해 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선산에서 잠들고 계신다.

끝없이 이어지는 묘석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함께 한다. 해진 군복 앞섬을 두 손으로 여미고 머쓱하게 서 있던 젊은 시절 아버지 모습이 잠시 눈앞

에 스친다. 아버지는 이 길을 걸으며 동료를 생각하고, 그날을 기억하며 찾지 못한 친구들 생각에 애통해하셨으리라. 이팝나무 아래 비어있는 의자를 보니 아버지 생각이 더 간절했다. 도구를 끌고 걸어가다 힘겨우면 잠시 저 의자에 쉬셨을까.

잊지 못할 친구를 찾기 위해 함께 학도병에 지원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아버지가 택한 사죄는 평생을 군인으로 사는 일이었다. 공병대에 근무했던 아버지는 전출이 잦았다. 70년대 국토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건설 현장과 산골짜기 도로를 내는 곳이 있는 부대에서 근무했다.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 낙후된 시골이라 출퇴근 시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이른 새벽 드르륵 페달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치익 기름 뿌리는 소리도 들렸다. 자전거에 묻은 흙먼지와 기름 냄새가 코와 입으로 들어가면 그 먼지들을 뱉어내느라 실 사이 없이 기침을 했다. 공사를 시작하면 아버지는 자주 날카로운 톱이나 칼에 손이 베이고 뽀족한 못에 찔리기도 했다. 아버지 손을 보고 엄마가 걱정스러운 말을 하면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도 많은데 이깟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엄마를 나무라곤 하셨다.

기초공사는 언제나 군부대에서 시작했다. 어느 정도 공사를 하고 나면 건설 회사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갔다. 때로는 위험하기도 해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식구들은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다. 강원도로 전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동료군인들이 트럭에 나무를 가득 싣고 왔다. 아버지는 내게 한쪽 눈을 찡긐해 보이고는 시소만 덩그러니 놓여있던 운동장에 기둥을 세우고 그네를 만들어 주었다.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준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그네를 탈 때마다 내게 고마워했다. 수업 마치고 들길을 걸어가다 아버지가 타고 가는 트럭을 만나면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라며 건빵 몇 개를 건네주곤 하셨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아버지다. 일과를 마치고 나면 막걸리 잔을 들어 한 모금씩 삼키면서 옛 친구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 얼큰하게

취기가 돌면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부르던 노래를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처음 들은 노래도, 마지막으로 들은 노래도, 그 노래밖에 없었다.

“가랑잎이 흩날리는 전설의 달밤……”

어릴 적엔 뜻도 모르고 그 노래를 따라 불렀었다. 소풍 가서는 아버지 흉내를 내며 불러 상품을 도맡아 타오기도 했다. 훗날 그 노래가 가슴 아픈 노래라는 것을, 내가 재미로 놀이처럼 불러서는 안 되는 사연 깊은 노래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충부리 멋어버린 고지 위에 꽃히며 마음대로 나부끼는 태극기를 찬란해 다시 한 번 보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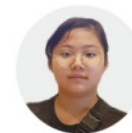
늘 마지막 소절을 두 번씩 이어 부르던 아버지, 아버지 친구 학도병은 꽃다운 청춘을 불사르며 조국 수호를 위해 숭고한 죽음을 택했다. 대부분 염원하던 승리와 조국 통일을 보지 못한 채 이 땅위에서 사라졌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지만 같은 혈육이 대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차라리 슬픔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힘을 모아 새로운 한줄기 뿌리를 내려야 할 때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도 안 되면 세 번 하고,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될 수 있다고….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는 끝없이 노력해서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아버지 친구의 유해를 찾아 아버지 동료들이 있는 이곳으로 아버지가 하루 빨리 돌아오시기를 거듭 기도한다. 수많은 묘비를 향해 조용히 감사의 묵념을 올린다. 



그대들의 용기있는 한 발짝



소윤아 서울신상도초등학교 6학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한 발짝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발짝

용기 내어 약해진 조국을 생각하며
두 발짝

그대의 소중하고 용기 있는
한 발짝은

그 무거운 총칼을 들고서 용맹히
한 발짝

지금 우리의 열 발짝보다
훨씬 고귀하며 대단합니다

그대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나라

그대들의 생은 짧지만
그대들의 업적은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호국영령
대쪽 같은 나라사랑으로





가작

현충원 안에 내 작은 마음



임수빈 서울가동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 다닐 때
전학으로 와 보았던
현충원

오늘 2학년이 되어서
엄마 손잡고 왔다

다시 찾아온 현충원
그때 나는 몰랐었다

현충원에
이렇게 큰 마음이,
나라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의 희생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나는 잠시 하늘을 본다
날아가는 새들,

흘러가는 구름을
하얀 그림이 되어 모두가
조용하다

나무들
꽃들
목소리도
정건하다

내 작은 마음에도
숭고함이
솟아난다 ✈



가작

도화지



김민호 서울가동초등학교 4학년



나는 도화지에다가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본다

태극기와
무궁화도 그리고
애국가도 적는다

가운데 선 하나
지우고 싶은
휴전선

나는 휴전선은
그리고 싶지 않았다

반으로 갈라지지 않은
우리나라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미래 같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라 사랑을
잘 나타내고 싶다

도화지에 그려진
잘생긴 우리의 지도가
흐뭇하게
나를 바라본다

용맹하게 싸우신
군인들의 마음이
전혀져 오는 것 같다 ✈



가작

나의 봄날과 그들의 봄날은...



장서는 인천옹현남초등학교 6학년

나의 봄날은 상상한 가지에 예쁜 색칠을 한 듯 핑크빛 물결이 바람에 춤추며 따뜻한 기운을 뿜어내는 행복한 계절이다. 벚꽃나무는 팝콘이 달린 것처럼 서로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트리고 바람의 꽃잎은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 날리며 내 손에 잡힐 듯 설레게 만든다.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옛말이 있다. 나는 친구들과 앞으로 찾아올 첫사랑을 생각하며 꽃잎을 잡으러 이리저리 뛰어 다닌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아픈 기억은 잊혀도, 지워져서도 안 될 큰 전쟁의 상처가 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고 원했던, 원하지 않았든 많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참여되어 희생과 남은 가족들의 그리움이 되었다. 전쟁 중에도 사계절은 찾아왔을 것이며, 나에게도 행복한 계절이라 기억되는 봄도 찾아왔을 것이다. 그 전쟁터의 봄은 달콤한 꽃 냄새가 아닌 매캐한 화약 냄새로 입과 코를 막고 싶었을 것이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아닌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과 비처럼 쏟아지는 폭탄들을 피하며 잠시 몸을 숨길 수 있을 때면 첫사랑의 사진을 꺼내 보기도 하고 남겨져 있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숨죽여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현충원을 둘러보니 꽃들도 나무도 새소리도 전쟁의 기억들을 잊은 듯 너무 평화로웠다. 꼭 호국영령들을 위로하듯 계절의 색깔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놓은 것 같았다. 나는 조금이나마 내가 느끼는 봄의 따뜻함과 행복한 기운이

내 손끝을 따라 느껴질 수 있도록 묘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그분들을 떠올렸다. 나와 가족도, 먼 친척도 아니지만 뜨거운 피가 흐르는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나는 맹세한다. 호국영령들의 위대한 희생과 감사함은 대대손손 기억하며 함께 할 것이다. ✈





가작



김민결 서울도림초등학교 3학년

넓고 푸른 잔디 위에
차례차례 서있는 묘비들

빨강 노랑 예쁜 꽃들
누가 왔다 갔을까

조용하고 평온한 묘비 앞에 서니
고통스럽고 용감하게
나라를 지키신 분들의
소리가 들린다

얼마나 목이 터지게 불렀을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을까
지키고 싶고 지켜야 했던

그들의 나라
대! 한! 민! 국!
나의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대! 한! 민! 국!

이제 우리가 지키자 



가작

현충원

조지연 서울가동초등학교 2학년

내가
현충원에 가기 전에는
몰랐다

아빠 손잡고
가보니 알았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마음 아픈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용사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마음을 적신다
용사들의 나라 사랑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절로
고개 숙여진다 🚢





가작

봄바람



김나우 양주 옥정중학교 2학년

안녕하세요.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는 한 여중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저는 독서캠프에 참여했죠. 그러던 중 독서캠프에서 백범 김구 기념관에 간다고 하였고, 저는 선생님께서 계시는 기념관에 가게 되었죠. 관광버스를 타고 기념관에 도착하니 선생님께서는 저를 향해 웃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마치 저에게 '나의 기념관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기념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선생님은 완전 개구쟁이더군요? 선생님의 어릴 적은 지금의 저보다 더 철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래도 개구쟁이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 선생님이 친근해지고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기념관의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니 선생님이 남기신 업적들이 끝없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지휘하신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해 임시정부 수립, 독립운동까지. 그리고 저는 선생님의 용기에 가장 놀랐습니다. 주막에서 조선인 옷을 입고 있던 일본인을 때려죽이고,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행동이라고 선언하며 집 주소와 이름을 말하며 찾으러 오라고 하신 그 용기에 말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기념관 관람을 끝내고 선생님이 계신 묘지로 갔습니다. 큰 무덤 아래 잠들고 계신 선생님을 향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대한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신 선생님이 편히 잠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는 경교장에도 갔습니다. 선생님이 암살당하신 곳에 들어가자 총알로 뚫어진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창문을 보자 저도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나라를 위해 살신성인하신 분인데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니. 선생님은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부디 하늘에서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피바람이 불던 그 시절, 나라를 위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봄바람이 부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봄바람 부는 대한민국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시절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우리나라를 꼭 지켜낼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봄바람이 불게 할 것입니다. 





나비



김하은 춘천 유봉여자중학교 2학년

햇살에 얼룩진
작은 나비는
바람의 명부

바람이
나비를 들고
조문을 왔다

한때는 눈물로 얼룩졌을
작은 묘비 앞에서
이제는 이름이 흐릿한
누군가의 묘비 앞에서

천천히
나비를 펼치는 바람

세월이 묻어나는 나비에
빼곡히 적힌 이름들

바람이 나비를
한 장씩 넘긴다

조용히
묘비명을 말하는 바람

서서히 잊혀져가는
낡은 묘비들

나비의 날갯짓 한 번에
부서질 것만 같은
묘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바람

바람이 머물던 자리에
나비의 날갯짓만
조금 남아 있다 



그대들은 어떤가요



이예현 통일중학교 2학년

현충원의 봄은 파스하기만 합니다. 하늘거리는 바람에 구름이 천천히 떠
가고, 내리쬐는 햇살에 나뭇잎 끝은 반짝입니다. 나는 나무 한 그루가 만들
어 준 그늘 아래 앉아 한없이 그대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
대들을. 집을 뒤로 하고 세상의 전부 같던 가족들을 남겨 둔 채 떠나야 했던
그 기분을. 걸어가는 내내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다가 그들이 어느 순간
작아져 하나의 점이 되고, 마침내 사라졌을 때 그대들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
겠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을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
을지도 모릅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는 전쟁터는 차가웠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다는 건 어쩌면 힘겨운 일이었을 지도요. 어느 순간 그대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덩달아 얼어붙을 것만 같은 손을 후후 불며 앞으로 나아갔을 때, 금방이라도 주저앉아 버릴 것 같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을 때 그대들의 기분을, 그 순간에 그대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는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줄지어진 비석들 사이로 발을 내디뎌 봅니다. 그대들이 있었던 그 상황에 나 자신을 대입해 보는 것은 여전히 어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무언가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께서도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엄마의 할아버지가 되는 분이니 정확히 나에게서는 증조할아버지가 되겠군요. 내 기억 속의 할아버지는 언제나 웃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골에 내려갔을 때 '할아버지'를 외치며 달려가면 두 팔을 벌려 환영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이면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햇빛에 일찌감치 눈을 뜬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 나가곤 했어요. 꿈지락거리며 작은 발에 신발을 꿰어 신던 나를 할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한 걸음 앞서 가는 할아버지를 따라 신나게 나무가 무성한 길을 뛰어다녔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반가워, 작게 핀 꽃에게 안녕, 너도 예쁘다. 그 옆에 자라난 풀에게도 안녕. 그렇게 하나하나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다 내 눈길은 언뜻 쳐다본 할아버지의 뒷모습에 머물렀습니다. 힘차게 걷고 있지만 무언가 불편해 보이는 듯한 걸음걸이. 할아버지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계셨습니다. 잠시 말없이 걸으며 무슨 일일까 고민하던 나는 다시 조잘거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엄마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왜 다리를 절뚝거리시는 거야? 엄마는 6·25전쟁 때 군인으로 싸우셨던 할아버지께서 다리에 총탄을 맞고 다치셨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하고 말았어요. 그땐, 5월이 되면 현충원을 찾고, 이렇게 그대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길 때면 그때 그 대화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할아버지를 떠올릴 때면, 다리에 총탄을 맞고 절뚝거리던 모습이, 그 모습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뵈러 갈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 주셨는데 그와 대조되는 아픔이 왜 이제서야 떠오르는 걸까요. 당신은 항상 미소를 짓고 계셨는데 그 미소를 떠올리는 나의 얼굴엔 잠시 어둠이 스쳐 지나갑니다. 한없이 해맑던 다섯 살 꼬마의 머릿속엔 전쟁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그 꼬마는 이제 현충원에 와 그대들 사이를 거닐며 그대들을 걱정할 줄도 아는 열다섯 소녀가 되었습니다. 소녀는 그대들의 노력으로 할아버지와 잠시나마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대들을 바라보는 지금, 할아버지

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일까요. 조금씩 흐려지는 무언가를, 그 기억을 다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그보단 기억하겠다고, 포근한 봄 햇살 아래 그대들이 빛날 수 있게 하겠다고. 아픈 기억들이겠지만 고개를 떨구고 눈물짓기보단 애써 웃어 보이겠다고. 환한 웃음에 더 밝은 햇살이 비칠 수 있도록.

그대들의 겨울은 얼마나 차가웠나요. 내리는 눈송이가 잠시라도 따듯한 이불이 되어 주었을까요. 그 온기로 잠시나마 눈을 붙이고 걱정을 접을 수 있었나요. 봄, 봄이 옵니다. 이 글을 읽고 있을 때쯤이면 이미 여름이 오면 나는 다시 현충원을 찾을 거예요. 아마 같은 자리에 앉아 그대들을 바라보며 또 아무도 모를 그대들의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대들 사이를 거닐며 작은 소리로 이렇게 속삭일지도 모르겠네요.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제는 정말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그대들 덕분에 저는, 우리는 하루하루 평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가작

영웅들의 대열



김태겸 성남 운중고등학교 1학년

똑같은 모양에
똑같은 크기의 묘비들
그 너머에도
또 그 너머에도
모두 다른 이름들이지만
내 눈길은 전부 스치듯 지나고

마지막 줄까지 속독한 나는
스치듯 돌아섰지만
유족들이 꽃아놓은 헌화처럼
내게 꽃힌 한 개의
송고하고 무거운 단어가
나를 관통해 땅 깊숙하게 박혀
발을 뗄 수 없었다

성남에서 전사
서울에서 전사
전사
전사
전사

뒤를 돌아서야 보이는
묘비의 이면
영웅들의 마지막
그제서야 난 묘비 하나하나가
그저 비석이 아님을
머리보다 가슴으로 보게 되었다

멀리까지 펼쳐진
영웅들의 대열
누군가는 몸에 폭탄을 두르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나이에
누군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며
후세를 위해 기꺼이
고난에 맞서 피 흘리며 깎여
대한민국의 주춧돌이 되었다

잡초가 자라면 묘비를 덮듯
시간의 흐름에
그들의 흔적이 희미해져도
우리는 영웅들과
그들이 흘린 피를
기억해야 한다 ✈





가작

잠들지 못한 소년병

이윤서 고양예술고등학교 1학년

아직 잠들지 못한 뼈가 있다. 이곳 현충원, 무후선열제단에는 독립운동이
나 의병활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 중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의 위패가 모
셔져 있다. 할아버지가 항상 그리워하던 그의 형이 떠올랐다. 큰할아버지도
현충원에 계신 분들처럼 나라를 위해 싸우셨다. 나는 잠들지 못한 뼈들과 큰
할아버지를 위해 짧은 기도를 올렸다. 오월, 일찍 여름이 찾아온 현충원에는
후텋지근한 바람이 불었다.

큰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터울이 많이 났다. 아이들이 많았을 시절, 오형
제 중 큰형과 막내였던 그들의 관계는 어느 형제보다도 각별했다. 큰할아버
지가 할아버지를 특히 아껴 허약한 몸을 이끌고 일을 나가 동생의 학비를 벌
어주기까지 했다. 덕분에 할아버지는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비록 일 년도
채우지 못했지만, 전쟁은 할아버지의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큰할아버지는 소년병으로 파병되었다. 소년의 나이는 겨우 나보다 한 살이
많은 열여덟 살이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파병을 나갔던 소년병들
이 전부 북쪽으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할아버지는 그 소문이 진실이
길 빌었다. 평생 보지 못해도 좋으니, 어디서든 무사히 살아만 있어 달라고.
휴대폰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 전쟁통에 헤어진 사람을 찾는 일은 거의 불가
능했다.

“원래 살던 집에서 기다리면 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열게 쓴웃음을 지었다. 도로명 주소나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은
생겨날 조짐도 보이지 않던 시기였다.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아닌 부실한 것
들로 지어졌을 집은 군대의 공격으로 쉽게 사라졌다.

“일대의 집들이 모두 무너졌어. 우리라고 피해갈 수는 없었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먼지와 잿더미만 남은 마을에서 살던 집을 찾는 일은 불가능했어.”

어린 할아버지는 공격을 피해 서울에서 대구로 피난을 갔다. 덕분에 서울
태생인 할아버지의 말투에는 사투리의 억양이 남아있다. 나는 여태 할아버지
의 고향을 대구로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사투리 섞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젠 조금 슬퍼질 것 같다.

칠순 잔치가 끝나고도 한 달이 지난 세월이 흐르고서야 할아버지는 형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으로 세상이 시끄러울 때였다. 북
한에 있을 것이라는 소년병들의 소문을 드디어 확인할 기회였다. 확인을 마
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북한으로 넘어간 것은
그저 소문이다. 연세가 있으셔서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 그 어떤 말
도 할아버지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술을 마셨다. 건
강관리를 위해 음주는 금지라는 의사의 말도 무시한 채, 나는 조용히 빈 술잔
을 채웠다.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큰할아버지를 생각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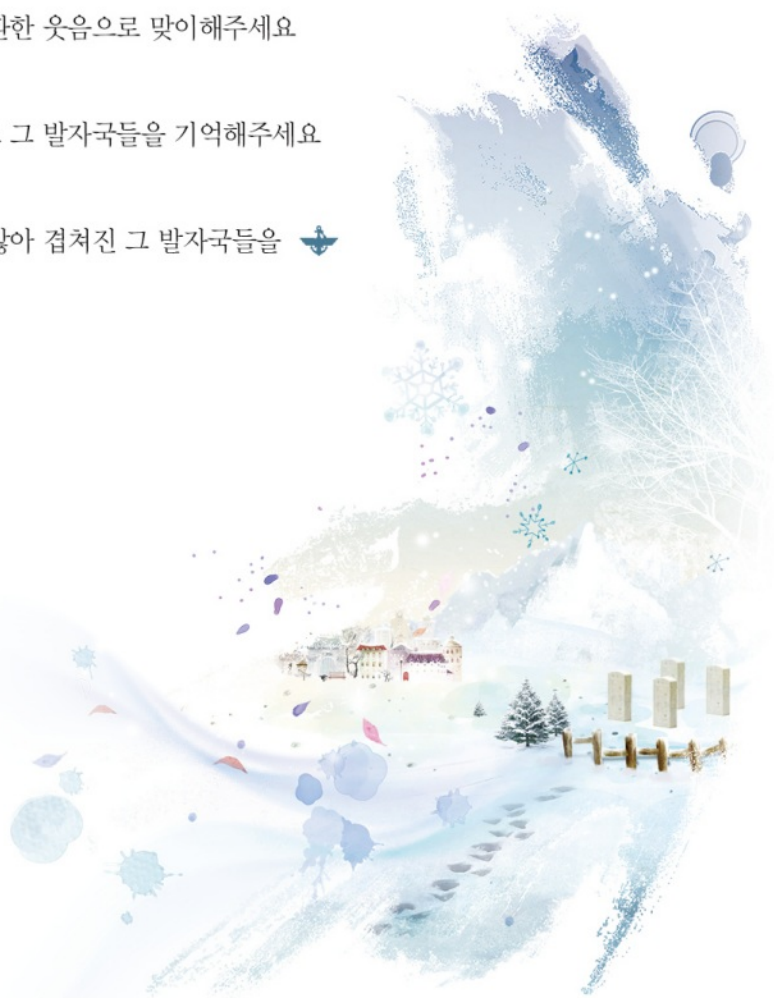
언젠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무후선열제단에 걸음하고 싶다. 그날만큼은
큰할아버지와 잠들지 못했던 뼈들이 편히 눈을 감길 바란다. 불면증에 시달
리지 않도록. ✨

꽃가루가 하늘에 흩날리는 날에도
바닥이 일렁일 만큼 무더운 날에도
선선한 바람에 기분이 좋은 날에도
손과 발이 빨개지는 추운 날씨에도...

그대들 잠들어있는 곳을 거니는 발자국들은
항상 따뜻한 마음뿐일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선
그저 환한 웃음으로 맞이해주세요

그리고 그 발자국들을 기억해주세요

너무 많아 겹쳐진 그 발자국들을



유관순 만세

정은아 서울시 서초구

그대
떨구어지는 검은 머리카락 같은
꽃가루가 흩날린다

눈물 흠친 옷고름 같은
나뭇가지의 춤사위 탓에
그대가 그리운 날

오늘 내리쬐는 태양에
눈을 뜨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가혹한 채찍은 그대의 눈썹을 감게 하지 못했소

키보드를 뽕뽕 달리는 아이들은
깨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지만
꽃꽂이 그대의 두 다리는
충칼에도 무릎 꿇지 않았다고



24평 아파트에서

좁은 부엌을 서성인 오늘 아침,

땀기머리 소녀들로 발 디딜 틈 없는 그날의 서대문이 떠올라

내린 커피가 목에 걸려

뜨끈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니

참았던 그대에 대한 그리움이

팔팔 넘쳐 흐르오

편히 쉬시오

그대가 외쳤던 말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니

나는 그대를 외쳐보리라

“유관순 만세!”



가작

아이들과 함께하는 현충원



진은하 서울시 은평구

내게 현충원이란 현충일 날 텔레비전에서 사이렌과 함께 묵념하는 영상이 전부이다. 그런 나에게 몇 년 전 지인이 현충원에 단풍 보러 가자고 했을 때 드악했을 만큼 현충원이란 이미지가 주는 무게가 이곳에 쉽게 발걸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얼마 전 글쓰기에 관심 있는 중학생 딸이 백일장에 참가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앞으로, 어쩌면 내게 남은 생애에도 이곳에 대한 내 느낌은 아직도 그대로였을 것이다.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딸을 위해 가족 모두가 같이 나들이 겸 가기 위해 도시락을 싸면서도, 돛자리를 챙기면서도 반신반의했던 것이 사실이다. 출발 전 작은아이가 키크보드를 가져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거긴 키크보드 타면 안 되는 곳이야.” 하며 만류하던 나 때문에 내 아이들에게까지도 현충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주제에 당황하는 아이를 위해 주변을 같이 둘러보면서 돛자리를 깔고 싸온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 뛰어노는 아이들과 봉사활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 누군가는 이곳을 청소하러, 누군가는 이곳에 꽃을 보러, 음악회를 관람하러, 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가족들을 보면서 내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고 오느구나.’하는 생각을 해본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으로 이곳을 편하게 방문을 하느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많은 분들이 잠들어 계신 이곳에서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안식하고 계신 이 순간마저 외로워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분들의 후손들이 찾아 누군가는 편하게 휴식을, 누군가는 도란도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의 첫걸음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현충원에서 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들, 봉사활동까지도 모두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닐까 소심하게 생각해 본다.

앞으로 매년 백일장에 참가하고 싶다는 아이를 위해, 요즘 '유관순' 열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 이렇게 이곳에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나도 시작은 봄에는 봄꽃을, 가을에는 은행나무길을 보러 오는 것부터 시작해 보아야겠다. 먼저 아이와 함께하는 봉사활동부터 시작해 봐야겠다는 생각부터 해본다.

그러다 보면 유관순 열사에서부터 더 나아가 역사를 싫어하는 아이들부터 좀 더 흥미를 심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곳을 방문한 나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참 감사한 '오늘'이 아닐까 한다. 🍀



순국선열을 마음에 기리며



조영옥 인천시 남동구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깃대 몸에 꽂힌 태극기가 여유롭게 펄럭입니다. 연두색으로 피어난 나뭇잎들은 조금씩 질어지고 있습니다. 꽃들의 잔치는 끝나가고 주차장에 세워진 수많은 자동차들이 햇볕에 반짝입니다. 아이들은 글짓기, 또는 그림을 그린다고 엮으려 있고, 부모들은 곁에 앉아 담소를 하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이 모습은 수많은 묘비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조금 전에 현충문 앞에서 애국선열님들께 묵념을 드리고 구역을 나누어서 묘비를 닦아드리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신 순국선열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애지모(애국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소비자의 모임)에서 어린 환경지킴이 기자단과 봉사단원인 부모님들이 함께했습니다. 묘비를 앞뒤로 정성껏 닦으며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조용히 입으로 불러봅니다.

여기에 누워 계신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월의 아름다운 신록을 감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애절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어린 손자의 얼굴을 닦아내듯 사랑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북간도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오직 나라의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떠나신 이회영 6형제분들의 결단과 행동은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역사에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

의 숭고한 정신을 애지모에서 참관하는 역사 강의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저의 작은 가슴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울림이었습니다. 최악의 어려운 환경에서 삼천오백 명의 무관을 배출하여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고, 빼앗긴 나라를 찾아 국민의 주권을 돌려주시려는 인류애적인 숭고함에 일제는 더욱 발광하였지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오형제분에 대한 숭고함을 어찌 몇 줄의 글로써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묘역 앞에서 묘비를 감히 어루만지며 애절한 상념에 빠져 고개 숙입니다.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순국열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우리 후손들은 백주년을 기리며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강한 정신을 물려주셨기에 세계 10위 안에 드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



묘역의 꿈

김민지 경기도 고양시

비밀을 말하기 서툴고
비밀을 지키기 힘들어
다시 개화

눈물이 다 날 지경인데
시간이 없어 벼락같은 색을 품고
꽃꽂한 목 가늀 길 없어 팬스레
바람에 일렁일렁 목 놓아 울다 파드드
부러진 다리로 추락

와락 함성에 휩싸인 맨몸은 부질부질
길 없는 시간을 붙잡고 여기저기

내게 네게



빛을 양, 문 순간 웅성이는 이파리들은 후두두두
 뭐가에 데인 듯한데 빛인지 바람인지 공기인지
 어떤 숨, 결, 인지
 푸드덕거리며 비상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어떤 이의 푸른 꿈이 쏟아지는 공중전
후퇴란 없어 일보 직전

시끄러웠던 계절이 다시금 발을 내딛는다
파당

흔들리는 꽃대 사이 풍경 사이
넘어진 당신을 일으켜 세워주는
다시 봄 



가작

우리 안의 '현충'



박정은 울산시 남구

집에서 나설 때, 드라이 해둔 정장 바지를 꺼내 입었다. 색이 어둡고 단정
한 옷을 챙겼다. 처음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오는 날이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중·고등학생 때 봤던 울산대공원 한쪽의 현충탑의 모습과, 또 다니던 대학교 근처의 UN 기념공원 비석을 볼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다. 단순히 규모의 차이라고 말하기엔 어려운, 엄숙하고 차분한 느낌이었다. 생각해보면 규모보다는 생각의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성인이 된 내게 ‘현충’은 더 이상 특별한 의미는 아니지만, 더 일상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어릴 때 느낀 ‘현충’은 내게 일상보다는 이벤트나 행사라는 개념에 가까웠다. 매년 현충일 즈음이면 순국선열을 기리는 백일장이며 그림대회가 열렸고, 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권유로 종종 대회에 참여하곤 했다. 중학생 때는 친구들과 함께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거리 퍼레이드에서 태극이 그려진 셔츠를 나눠 입고 신나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기도 했다. 그래서 현충의 의미는 항상 ‘특별한 것’이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충성한 순국선열과 애국열사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 특수한 상황, 특별한 인물이었기에 가능한 일처럼 여겨졌고, 또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매년 현충일이나 광복절이 되면 눈앞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국가와 민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대상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겠는지, 손

툽과 발툽이 생으로 뽑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말살하는 모진 수모를 겪고도 바라는 것은 오직 대한독립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자문해보곤 했다. 물론, 드물게 ‘그렇다’고 대답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나를 헌신하겠다고 설블리 답하는 것이 경솔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런 대단한 일을 해내기엔 내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개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최근 몇 년간 내가 생각하던 ‘현충’의 의미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계기는 동생의 입대였다. 의무 복무 중이었던 동생을 보며 ‘그저 남들처럼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이 무색하게, 동생은 군대에 남아 군인으로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겠다고 얘기했다. 동생은 훈련 때 수류탄을 발밑에 떨어뜨릴 뻔해 아찔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곧은 눈빛으로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두 번째 계기는 친구의 고백이었는데, 친구는 오랫동안 꼭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아쉽게 이루지 못했다며 내게 자신의 꿈이 공군에 입대해 멋진 군인이 되는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여군으로 복무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이번에 입대하는 것은 좌절되었지만 다음에는 꼭 입대해서 꿈을 이루겠다고 말하는 친구가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마지막 계기는, 얼마 전 3·1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를 관람했을 때 거기서 본 학생의 눈물이었다. 영화 상영이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며, 내 앞자리에서 영화를 보았던 한 학생이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주변 친구들이 ‘영화일 뿐인데 왜 이렇게 울어’라고 말하며 달랬지만, 그 학생은 ‘미안하다’며 쉽게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현충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참배하러 들렀던 서울현충원 묘역에서 본 ‘논산 순직’이라 적힌 한 묘비 앞에서, 나는 논산에서 훈련 중일 동생이 밟고 있을 땅의 단단함을 생각했다. ‘파주 순직’이라고 적힌 묘비 앞에서는 공군에 입대할 내 친구가 바라보게 될

하늘의 자유로움을 떠올렸다. 빼곡한 독립운동가들의 위패를 모신 건물 앞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이제부터 지내게 될 서울에서의 미래를 그렸다.

자신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고,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이름 모를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열사분들께 감사함과 미안함을 잊지 않는 것 또한 현충의 정신이라면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나의 대답은 늘 ‘그렇다’일 것이다. ✈





가작

이름 없는 당신에게



백승민 인천시 서구

꽃을 피운 열매에게 안부를 되묻는다
흘러가는 말들은 빗물과 함께 녹아내리고
곰씹을수록 밀려오는 나날들을 표면에 새긴다

수많은 약속들이 오가는 곳
활자로 남아 있는 이름 세 글자는 당신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갈 길 없는 인사는 허공에서 흩어진다

아른거리는 푸른 잎맥에서 깨어난
김ㅇㅇ, 지나온 무한한 길을 투영한다
투쟁의 역사에서 유명했을 당신의 눈 끝자락에는 땀이 서려있었으리라
스치는 손끝에 상처받은 순간이 있었으리라
내뱉고 싶은 말들은 침과 함께 목울대에 영킨다

놓치고 있는 것들, 닳아 없어지는 지문
닿지 못할 거리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심해에서 헤엄치는 목숨

봄의 끝자락, 아스라이 무너지는 계절
먼 길을 향해 나아간 당신에게
푸르게 드리워진 하늘을 편지로 부친다 ✈





은밀하고 위대하게

안삼숙 경기도 남양주시

나무들이 꽃을 피워 봄을 비단처럼 아름답게 수놓은 현충원!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꽃비’라 부르는데, 올봄 유난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비가 내렸던 것이 당신들께 주신 3·1 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축하해 주는 선물, 팡파르를 올려주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이 부끄럽게 산소를 어찌 쓰느냐며 유골을 갈아서 온 산하, 구석구석에 뿌려주면 죽어서 혼이라도 되어 나라를 찾는 데 뿌리가 되겠다고 하신 어느 이름 모를 독립유공자분들과, 이름도 군번도 없는 13세~19세의 노무자 지계꾼들, 탄약과 보급품을 어깨가 으스스하게도록 산등성이를 오르내리시다가 산화하신 그분들만 생각하면 미안해서 감사해서 목이 메고 눈물이 납니다. 앞을 가려서 이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저릿저릿 아파집니다.

독립유공자 명단에 이름도 올리지지 못하고 나라의 독립만을 위해 묵묵히 가치만 주신 분들, ‘우당 이회영’ 선생님은 나라가 망했는데 가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전 재산을 팔아 6형제와 함께 식솔 60명 대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가 위기에 처한 공동체에 책임을 다하고 ‘나라는 힘이 있어야 한다.’하시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 독립군 양성에 이바지, 항일 무장 투쟁에 헌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셨습니다. 대장부가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며 비참한 각오로, “반드시 독립을 위해 이 한 몸을 불

사른다는 신념 하나로 중국 일본인 세탁소에 취직하여 일본어를 익힌 후, 도시락과 수통을 위장한 휴대용 폭탄을 행사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투척하여 침략의 원흉을 사살한 당신, 평범한 25세의 청년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소식을 접한 중국 국민당 총재 장제스는 “우리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어린 청년 한 명이 능히 그 큰일을 해냈다”고 격찬했다고 합니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애국심과 충성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남녀가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군대를 의무적으로 다녀와야 대학에 입학하고, 국가에 어려운 일이 닥쳐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외국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나라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글을 읽은 후 감격스러웠습니다. 일본이 침략 후 “우리나라 국민의 글을 말살하라”고 한 이유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들이 교육을 못 받고 자라면 ‘일본보다 100년이 늦게 발전된다’는 생각으로 계획했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음모입니까.

8살 손자와 함께 지하철을 이용할 때면 얼굴을 붉힐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손자와 젊은 분들에게 많이 미안했어요. 큰 목소리로 지하철 문을 두드리며 발로 차면서 상스러운 욕을 하는 어른 대통령을 욕하면서 나라 걱정이 많으신 어르신, 담배꽂초 아무 데나 버리면서 가래침을 뱉는 분들! 공원 난간을 스테인레스 또는 나무로 멋지게 펜스를 쳤는데 힘 자랑 하느라 발로 차서 다 찌그러뜨리고 야밤에 술, 음료수, 피자, 간식을 먹고 공원 한복판에 똥똥 버리고 가는 우리 모두의 아들딸들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초개와 같이 귀한 목숨을 버리시고 오직 나라를 되찾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바치신 당신들의 땀 한 방울이 모여 모여서 그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짜내서 더해져 작은 소망이 은밀하게 행동으로 옮겨져서 위대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져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손자한테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처럼 작은 실천과 목표, 작은 품위 있는 말 한마디 행동에도 온도가 있어 그것들이 애국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애국은 거대하고 큰일을 만들어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누워 계시는

당신들이 보여 주시고 바라시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작은 맘 한 방울을 모아 모아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휴지 한 장 버리지 말고 주워담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이겠지요. 그런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고 누워계시는 독립유공자 당신들을 사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내년 꽃비가 내리는 어느 날 손자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70년 만에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편안하게 잠들어 계십시오. 올해 처음 찾아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



가작



시골 영웅



오청락 경기도 남양주시

웅~웅~웅~웅~

아차,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걸 깜빡했다.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조용했던 극장의 정적을 깨웠다. 몇몇 사람들의 눈치에 뒤통수가 따가워지는 걸 느꼈지만 몇 번 울리다 말겠지 하며 다시 스크린에 집중했다.

웅~웅~웅~웅~

1분 남짓한 시간이 흘렀을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또다시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웅~웅~웅~웅~

멈추지 않는 휴대전화 진동 탓에 이미 나의 영화 관람은 엉망이 돼버렸다. 정말 보고 싶어 몇 개월 전부터 손꼽아 기다린 영화였는데...

“아 휴대전화 좀 끄시다.”

“누가 매너 없게 휴대전화도 안 끄고 영화를 봐.”

나의 영화 관람은 더 이상 불가능했다. 밀려오는 짜증을 억누르며 극장 밖으로 나와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5통. 아버지.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아버지 도대체 왜 전화하신 거예요?”

나는 가능한 가장 통명스러운 말투로 아버지께 쏘아붙였다.

“며칠 후에 면접 본다고 하지 않았니? 준비는 잘 되어가는 지 궁금해서 연락했다.”

“아니, 고작 그거 물어보려고 다섯 통이나 전화하신 거예요? 제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죠. 그리고 한두 번 해서 안 받으면 그만하셔야지, 아버지 때문에 영화도 못 보고 나왔잖아요.”

“그랬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하구나.”

“면접 보고 제가 연락드릴 테니 그전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물어 보시면 더 부담만 된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도대체 아버지는 왜 그러시는 걸까. 우리 아버지도 시골 사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 아버지처럼 센스 있고 매너 넘치는 세련된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님이 국가 유공자시네요?”

“네?”

“아버님이 국가 유공자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순간 가산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이력서에 습관적으로 쓰던 그 다섯 글자가 떠올랐다. 그 때 회사의 사장쯤 되어 보이는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가 안경 너머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며 질문했다.

“지원자에게 아버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 저에게...저에게 아버님은... 그러니까 아버님은 순박하고 욕심 없으신 시골 어르신입니다.”

“그래요? 그게 다예요?”

“어, 저를 지금껏 키워주신 감사하신...”

그 순간 백발 노신사의 목소리가 면접장의 공기를 가로질러 나의 뇌리에 꽂혔다.

“저에게는 영웅입니다. 지원자에겐 아버님이 그저 순박한 시골 어르신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지원자의 아버님 같은 분이 히어로(Hero), 영웅이에요. 지원자 아버님 같은 분이 안 계셨더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5월의 푸른 하늘도, 봄의 화사한 햇살도, 푸르른 녹음의 아름다움도 다 우리의 것이 아닐 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소중한 가능케 한 것이니까요. 영웅은 외계인의 침공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주는 극장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지원자는 지금껏 영웅 바로 옆에서 영웅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온 것 같네요.”

“아버지, 저 면접 끝났어요.”

“그래 수고했구나.”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안 궁금하세요?”

“누구 아들인데, 당연히 잘 봤겠지.”

“아버지, 괜찮으시면 저랑 식사하러 가실래요?”

전화를 끊고 예매했던 영화표를 취소했다. 며칠 전에 휴대전화 진동 때문에 제대로 못 봤던 그 영화를 꼭 다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아버지께 가는 길, 4호선 지하철 안내방송에서 동작역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 순간, 수많은 히어로(Hero)들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





가작

묘비석을 닦으며



김신애 서울시 서대문구

‘징용 이 경’ 묘비석을 물걸레로 닦으며 ‘이 사람은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고 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국립묘지 현충원, 여기 넓은 초록 들판 아래 편하게 쉬고 있을까?’ 비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먼지를 실어 내고 돌화병을 정리하는데 마음이 아려왔다.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의 심정이라 더 마음이 울컥한 것 같다.

마침 오늘이 군에 간 큰아들 생일이라 아침에 밥 새로 하고, 미역국 끓여서 상 차려 아들이 군 복무 잘 하고 오라는 기원을 하고 왔기에 현충원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에 기도의 마음을 담아 봉사하였다.

언젠가 ‘제국에서 민국까지’라는 전시회에서 마주 섰던 오래된 편지글 하나가 떠오른다.

윤봉길 의사가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물통 모양과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투척하러 가기 전 찍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모습에서 슬픔이, 비장함이 느껴져서... 강보에 싸인 두고 온 아들에게 쓴 편지에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프랑스의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지금은 빛이 바래 누렇게 변한 편지와 충살형 당하기 바로 직전, 무명의 눈 가리개 당하여 일본 군인들이 내려다보는 사진의 전시를 보며 마음이 아파 흐르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오늘 이 현충원 25~26묘역의 징용 당한 그 많은 영혼들은 아직도 남양군도, 일본의 어딘가를 헤매고나 있지는 않는지...

이제는 돌아와 편하게 쉬고 있기를 바래본다. 아직도 세계는 자국의 이익과 종교의 갈등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경제 불황과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누구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지는 않겠지만 창조적 소수의 리더들이 해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 할 것이라. 오늘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묘비석을 닦고 정리하는 일을 했지만, 앞으로는 애국심이 투철한 국민으로 성장하리라 기대해 본다. 🌸



현충원 소개

현충원 방문안내
현충원 주요행사
나라사랑정신
현충원시설과조형물
현충원묘역
현충원행사





봄 호국행사(4월)



호국문예백일장 / 현충원 그림그리기 대회(5월)



제64회 현충일 추념식(6월)



6·25전사자 합동안장식



815광복절 기념 호국교실(8월)



가을 호국행사(10월)



정기음악회(연중 4회)



국방부 특별군악 · 의장 행사(4~6월, 10~11월)



이승만 대통령 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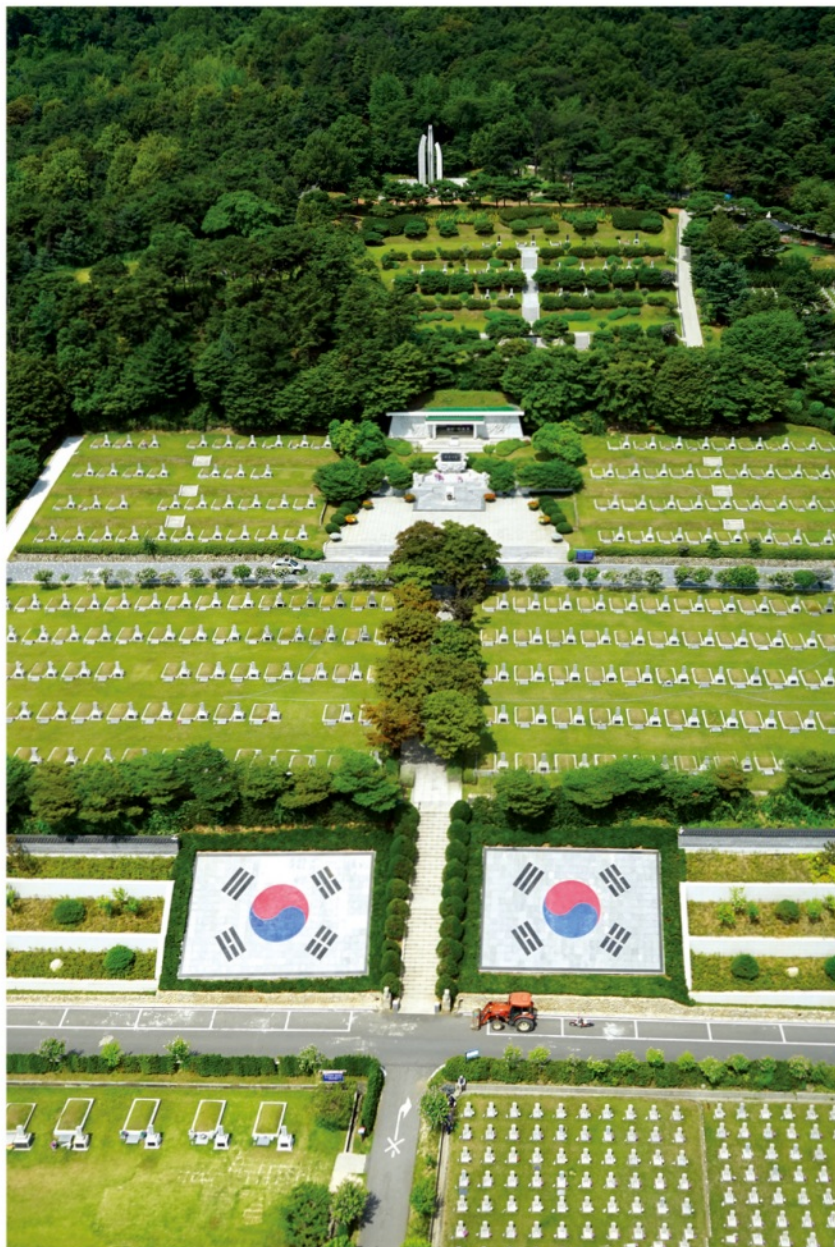
박정희 대통령 묘소



김대중 대통령 묘소



김영삼 대통령 묘소



애국지사묘역



국가유공자묘역



장군묘역



장병묘역



경찰관묘역



현충문



위패봉안관



충훈당



재일학도의용군 전몰용사위령비



육탄10용사현충비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



학도의용군무명용사탑



경찰충혼탑



유격부대전적비



충성분수대



호국영웅상



애국투사상



충혼승천상



영원승천상



대통령 참배



국민 참배_에티오피아 총리(201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학생 참배



어린이 참배



유아체험학습



현충원 체험활동



현충원 체험활동



현충원 호국강연회



일반 단체견학



국립서울현충원

주요 행사

나라사랑 행사

봄 호국추모행사 | 4월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수양벚꽃나무 군락지인 현충원에서 다양한 체험행사 운영

호국문예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 5월

내용 초·중·고·일반인 대상, 나라사랑을 주제로 백일장과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시상 국방부장관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서울·경기·인천교육감상 등 다수
 신청 현충원 홈페이지 신청 www.snmb.mil.kr

정기음악회 | 3~11월

내용 국방부 국군교향악단(80인조 오케스트라) 등 초청 연주회
 일시/장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현충관
 신청 현충원 홈페이지 신청 www.snmb.mil.kr

국방부 특별 군악·의장행사 | 4-6월, 10-11월

내용 국방부 3군 의장시범, 전통무술시범, 여군 의장시범 등
 일시/장소 위 기간 중 토요일 오후 2시(홈페이지에 별도 공지)/겨레얼마당

가을 호국추모행사 | 10월 말

가을이 무르익는 때, 현충원의 아름다운 단풍나무 아래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 운영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인·단체 봉사활동 | 4~11월

내용 현충원 묘역 정화활동을 통해 나라의 소중함을 느끼는 나라사랑 실천활동
 시상 개인, 단체(학교, 기업, 각종 사회단체)
 신청 묘비닦기, 잡초제거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

일반 단체견학 | 1~12월

연중 실시하는 현충원의 대표 견학 프로그램으로 학생 및 일반단체 대상
 내용 현충탑 참배, 묘역(해설)순례, 전시관 관람, 호국영화 관람

유아 체험학습 | 연중

유아 단체 대상, 색칠체험 교재 및 만들기 체험 교구 무료 제공
 내용 현충원 색칠체험과 현충탑 퍼즐 연필꽃이 만들기 체험 중 택일, 호국영화 관람, 참배

국가상징 체험학습 | 3~11월

초등학생 대상 "현충원과 함께하는 국가상징물 체험학습" 교육 프로그램
 내용 유품전시관 해설, 교육, 태극기 퍼즐 맞추기 체험, 현충탑 참배, 묘역순례, 퀴즈 등
 (우수자 현충원장상 수여, 참가자 전원 교재 및 기념품 증정)

나라사랑 체험학습 | 3~11월

초·중학생 대상, 현충원 안장자와 연계된 "체험, 선열들의 발자취" 교육 프로그램
 내용 유품전시관 해설, 교육(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 근·현대사 멀티 역사 연표 제작,
 현충탑 참배, 애국지사 묘역 순례, 역사 퀴즈 등
 (우수자 현충원장상 수여, 참가자 전원 교재 및 기념품 증정)

현충원 호국강연회 | 3~12월

중·고등학생 대상 외부 유명강사 초청 특별강연 프로그램
 내용 현충탑 참배, 묘역순례, 특별강연, 호국영화 관람(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현충원 체험활동 | 3~11월

초·중·고등학교 대상, 견학과 봉사를 결합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내용 현충탑 참배, 묘역(해설)순례, 봉사활동, 전시관 관람, 호국영화 관람(봉사활동확인서 발급)





국립서울현충원

방문안내



참배 · 개방시간

11월의 공휴일, 동절기(12~2월)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전시관 휴관입니다.

참배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개방 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전시관 관람 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단체견학 ·

전시관 관람 등 무료

묘역해설순례, 영화관람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주차 동문 '현충선양광장', 현충문 옆 이용 가능(주차비 무료)
문의 교육담당 문의 02) 826-6251

오시는 길

(지하철)

4호선 동작 / 현충원역 하차 4번 출구(동문 150m)

9호선 동작 / 현충원역 하차 8번 출구(정문 10m)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조국과 겨레는 나의사랑 나의 영광 나의 힘 나의 생명
그를 위해 짧은 인생을 바쳐 그와 함께 영원하리라

호국문예 제19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인쇄·발행 | 2019년 11월

기획·발행 | 국립서울현충원

편집·인쇄 | 디자인알지비(주)

주 소 |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전 화 | (02)811-6342

홈 페이지 | www.snmb.mil.kr

ISSN 2586-260X 비매품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

간접, 테러범, 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기무사령부 ☎1337